(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56 1982년 6월 2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esday, June 22,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JUN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18일 하오6시 캐라반제전의 「서울관」개관식에서 관계 인사들이 테이프를 끊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잭·올드릭 메트로·캐라반위원회 재무관, 서울「시장」함병섭, 이대환캐라반운영위원장, 이상훈총영사, 신귀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박인순한인회장, 이 광경을 오른쪽에서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 내려다 보고 있다. (장기철·이장성제조). 사진중 숫자「830」은 서울관의 주소 830베더스트·스트릿을 의미한다. 캐라반은 오는 26일 끝난다.

북한정치범 석방촉구

승공협회, 캐나다서도 서명호소

범민족적 1천만 서명운동

토론토에 있는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는 억눌린 북한동포의 구출운동에 나서 북한수용소해방촉구 범교민서명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북한에는 8개 강제수용소에 10만명 이상의 정치범이 있다.

한국의 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가 한국방공연맹의 후원을 받아 전개하고 있는 _운동에 호응, 해외에서도 똑같은 운동을 벌인 것이다.(본보 4월13일자)

현재 한국서는 1천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중 서명자 이미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외를 막론, 1천만명 서명이 달성되는대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이를 평양당국에 전달, 정치범 석방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참을 호소한 승공문화협회는 토론토총영사관의 협조아래 6월말까지 온타리오주내에서만도 8,200명 서명을 끝낼 방침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숫자는

LA서도 서명운동

노인회등서 주관

(LA지사)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감금, 인권유린 상태에 있는 북한동포를 구출하자는 교포서명운동이 18일 상오 LA한인단체들에 의해 실시됐다.

이날 11시30분부터 올림픽가에서는 재향군인회및 한국노인회 관계자들이 교포들의 서명을 받았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치자의 의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주민들에게는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른바 「49호병원」이란 60여개 수용소에 강제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주민들은 산간오지의 「특별독재구역」 속에서 동물적 생활로 인권유린을 자행함으로써 〈뉴욕타임스〉를 비롯 세계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날 서명운동을 추진한 교포인사들은 『북한수용소군도 해방촉구』라는 띠를 두르고 교포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서명운동은 국내외 1천만명을 목표로 계속된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 토론토·한국일보 —

전대통령 하야촉구

김의택 민권당총재

(서울)김의택 민권당 총재는 18일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정치집단의 이해에 앞서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난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릴 것을 조언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같은 제언은 『최근의 장영자사건과 경제난국및 의령사건, 6백여명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규제등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권당은 정무회의를 열고 장영자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할 것과 언론에 대한 간섭중지및 신속한 경제위기 해소책 마련등 6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6백여명의 구정치인에 대한 규제를 풀고, 모든 정치범은 무조건 석방하며, 대통령 직선을 위한 헌법수정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주초에는 가톨릭 정의평화구현단이 안동에서 모임을 갖고 현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큰손」파동 인책개각 "24일 이후로"

(서울)이철희·장영자사건 관계의 추가 인책개각은 사우디왕 조문사절로 18일 출국한 유창순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24일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유총리가 출국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각문제 협의가 없어 추가개각이 24일 이후로 미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총리가 출국했더라도 그 이전에 개각문제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 조기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고▶

민족상 시상식 연기

6월26일(토) 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던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은 3명의 지방거주 수상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가할 수 없어 훗날로 연기합니다. (시상식 날자, 장소 추후발표)

이날 참석 예정으로 계신 내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상회
토론토·한국일보사

34만달러 주인은 일본인

금괴밀수조직 적발 한국인 11명도

(서울19일=연합)김포공항세관에 압수된 주인없던 미화 34만달러의 소유자는 일본인 금괴밀수업자 하야마·다게지오씨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9일 이 사건 관련혐의와 금괴밀수사건으로 4명의 한국인을 체포하고 7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김포공항세관은 X-레이 화물검색에서 미화 34만달러가 든 임자없는 가방을 발견, 수사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이 돈이 11명의 한국인과 하야마(57)씨를 두목으로한 국제금괴밀수조직의 거사자금이었음을 알아냈다. 하야마의 한국애인 정은숙양도 체포됐다. 주범 하야마는 이미 지난 8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문공장관 언론 비난

「손」 보도자세 싸고

(경주19일=연합)이진희 문공장관은 한국언론들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비난했다.

이장관은 "최근 일부신문의 장영자사건 「사채스캔들」 보도는 정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국민의 신망을 잃게 하는 주관적 보도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 주관 매스컴뮤니케이션·세미나에서 연설한 이장관은 일부신문의 이같은 보도자세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책임없는 언론자세라고 경고했다.

언론인출신인 이 문공장관은 한국언론이 국가건설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권리는 보호해야하나 이 비판은 객관적으로 정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5월21일 문화방송사장에서 문공장관에 선임됐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서울신문사장을 지낸 정치지향 언론인이었다.

경찰 불만위원회 발족

주정부서 8명 임명, 인준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주 검찰총장(법무장관에 해당)은 16일 메트로·토론토 경찰에 대한 불평불만 조사 청문위원회 위원으로 8명의 변호사 (현재 1명은 판사)를 임명하고 이미 선정된 16명 위원(메트로시의회서 8명, 메트로경찰위원회및 메트로경찰협회서 각각 4명 임명)을 인준했다.

이날 인준받은 위원중에는 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홍중표씨가 들어 있다.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중 경찰과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된 문제에 대해 조사, 선처하는 시민보호기관이다.

맥머트리 총장 "이들 24명은 존경받는 판사, 변호사, 종교·노동지도자, 교사, 사업가, 언론인등 다양한 문화·인종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작년에 통과된 메트로토론토 경찰불평불만법에 의하면 주검찰총장은 전멤버의 1/3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변호사라야 한다.

올림픽의 날 급조

88올림픽 지원행사

(서울19일=연합)한국은 6월23일을 올림픽의 날로 정하고 '88올림픽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체육부가 발표했다.

체육부는 23일~30일까지를 올림픽주간으로 정하고 올림픽사진전, 각종스포츠용구 전시회등을 갖는다.

회교 뿌리내려

3만신도, 대학설립

(서울19일=연합)불교와 기독교가 지배하는 한국에 이스람교(회교)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스람교는 한국동란후 1955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2명의 터키병사가 전파한데서 비롯됐다.

아랍회교국들의 원조로 세워진 서울 이태원의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는 약3만명의 신도가 있고 서울, 부산, 광주등에는 지원이 있다.

한국회교회장 이화식씨는 각지방에 13개 지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경기도 용인에 회교대학을 세운다고 말했다.

조총련교포 방한

단오절 맞아 250명

(서울21일=연합)5월 단오절(음력 5월5일, 양력 6월25일)을 맞아 조총련계 교포 250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오는 이들은 친북한 재일교포들이다. 조총련교포는 75년이래 3만2,500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이들은 단오절행사후 포항제철등 산업시찰을 한다.

캐나다팀도 참가

서울 친선배구대회

(서울18일=연합)캐나다, 미국, 인도의 배구팀이 오는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남자친선배구대회에 초청됐다.

한국아마추어배구대회는 오는 10월2일부터 15일까지 알젠틴에서 있을 세계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팀의 전력을 강화하기위한 예비시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감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특별보너스 20%
노출의계절!
내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피부미용 ●화장법 ●화장품
선택요령에 대한 상담은 항상 친절히 응해드립니다.
화장품

30% OFF
●니나리치 ●마비스
●로댕스독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등
선글라스

30%～50% OFF
Ω OMEGA
이태리제 금목거리·팔지(14K·18K)
보석·시계

어름철 특별할인 다량입하
건강한 생활!
교포및 여행자를 위한 녹용및 보약재 직수입
●십전대보탕 ●녹용
●웅담(캐나다산)진품
●우황청심환 ●신경통약
●사향·해구신 ●각종종합비타민등
한약부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나치전범 용의자 체포

73살의 토론토시민 유태인학살 혐의

토론토노스·욕 거주자가 2차대전중 나치수용소에서 1만5백명의 리투아니아 유태인을 대량학살하는데 관련된 혐으로 41년후인 17일 캐나다연방경찰(RCMP)에 의해 체포됐다.

범인 알버트·헬무트·라우카씨는 집창문에 페인트칠을 하던중 붙잡혔다.

라우카는 온타리오최고법원에 잠시 출두했으며, 21일 보석청문회가 열릴때까지 수감된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은, 그가 41년10월28일경 라투니아카우나스에서 1만5백명의 유태인학살을 선동, 교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당국의 전례없는 이같은 움직임은 서독정부의 범인인도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라우카와 10년간 사귄 절친한친구 빌헬름·에브레흐트는, 그가 그런일을 할리없다고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유태인 대량학살 생존자및 단체들은 여러해동안 캐나다당국에 나치전범혐의자들을 인도하거나, 처형하라고 압력을 가해 왔다.

이번 캐나다의 전범혐의자 체포는 라우카가 처음이다.

유태인그룹은 현재 캐나다에 50~60명의 나치전범들이 있을것으로 추정하나, 대부분이 뚜렷한 증거가 없어 기소가불가능하다.

4주전 로버드·카플란 검찰총장은 캐나다에 사는 전 나치전범들을 처형하라는 유태인코뮤니티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으며, 다른나라로 범인인도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발에 위엄있게 보이는 라우카는 캐나다에 30년동안 거주했으며, 헌츠빌에서 모텔을 경영하기도 했다.

10년전에 은퇴한 라우카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클래식음악을 즐겨듣는 조용히 사는사람으로 알려졌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선교위한 순회개인전

정문철씨, 성서도예·서예전

◆정문철전도사

도예와 서예를 통해 그리스도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정문철개인전이 토론토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오는 24일(목)~2일(월) 매일 상오11시~하오8시 토론토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27일(일)은 영락교회(126 O Connor Dr.)에서 열린다. 주최는 안방문화복음화회.

전도사인 정씨는 숭전대학 교육과및,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으로 81년 미국 베델대학 초청 성서예술세미나를 비롯, 6회에 걸친 순회전시회를 가졌다.

◆정씨작품 성화도자기

3일 테임즈·벨리 10회 런던 골프대회

런던한인골프클럽(회장 이석범)은 오는 7월3일(토) 정오 런던 테임즈·벨리골프장(Thames Valley Golf and Country Club)에서 제10회 런던한인친선골프대회를 갖는다.

참가비는 $30로 스테익디너가 포함된다. 작년 대회서는 박영철 부총영사가 그로스부문 우승했다.

시상은 그로스(Gross), 넷(Net) 1,2,3등과 롱기스트 드라이버(Longest Driver)에게 애뉴얼 트로피와 부상, 니어리스트 홀(Nearest Hole)에게는 $100을 준다.

골프장 주소는 850 Sunning Hill Ave, London, 전화 (519) 471-5750.

문의처: 토론토의 김현모 (416)257-6578 씨나 런던의 이석범 (519)433-1631 씨.

동 우 회 야유회·경로잔치

토론토의 동우회(회장 원영신)는 오는 26일(토)상오10시~하오5시 스카보로지역 모닝사이드공원에서 야유회및 경로잔치를 임시총회와 겸쳐 벌인다.

회칙개정등을 다룰 임시총회는, 이날 아침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며, 그 이후는 야유회겸 경로잔치를 한다.

음료수·불고기, 특히 통돼지구이와 대대적 경로행사로 유명한 동우회는, 이날도 통돼지로 회원및 가족간의 친목을 가일층 두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온」주 신혼부부 봉변

LA서 강도에 몽땅 털려

(LA지사)17일 낮1시께 LA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LA로 신혼여행 온 캐나다 교포 신혼부부가 3인조 흑인강도에게 현금 2천달러와 결혼예물등 모두 5천여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렸다.

코리아타운파출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후 이수용(24)부부는 이날 올림픽 부근에서 점심을 마친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흑인 1명이 다가와 밖에서 자동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남편 이씨를 타이어 교환용의 쇠막대로 위협하면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것.

이씨가 순순히 지갑을 건네주자, 범인은 이씨의 왼쪽팔을 잡고 결혼선물로 받은 손목시계와 다이어반지를 빼앗았으며, 이순간 다른 1명이 승객석 문을 열고 옆에 있던 이씨의 부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핸드백과 반지와 시계를 차례로 강탈했다.

미 코네티컷대학교 한국학 강좌 개설

미 코네티컷주 뉴브리튼시의 센트럴·코네티컷 주립 칼리지에서는 동양학및 한국학강좌를 개설, 6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여름학기 수업을 위한 학생을 모집한다.

미국및 캐나다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강좌의 등록비는 $365, 기숙사및 식비는 $330.

강사는 유재신박사, 고광림박사이외 다수. 토론토지구 연락처는 621-2189이다.

◆US오픈골프 17번째의 홀에서 버디를 올린 톰·왓슨이 기뻐하고 있다.

경제특집 지상 FORUM

증권시장에서 본 경기변동 I

강상욱(증권회사 메릴린치근무)

◇강상욱

경기전망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1)국민저축을 향상시켜 구매력을 유발시킴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수요측면에서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2)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 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정부가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함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공급측면에서의 경제(Supply-side economies), 3)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측면에서의 경제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3가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은 되지만 문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경제가 운용되느냐에 있다.

한국은 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갖가지 정부주동정책을 구사한다면 북미에서는 경제의 기반이 잡혀 있는 관계로 모든것을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경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량을 조절, 경제를 이끌어 간다.

통화량 조절은 지준율보다 이자율로

불경기 기간 점점길어져 2년예상

따라서 북미경제를 이해하는 첩경은 통화정책의 파악에 있다. 이를 조정하는 선행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M1이다. M1이란 은행밖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당좌(Checking)및 보통예금(Current account)에 속해 있는 통화의 총합계로서 언제라도 지출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는 돈들이다. M1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는 부양되고, 물가상승현상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각 정부는 이처럼 물가나 경기와 직결되는 유통통화의 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대표적인 두가지를 보면 1)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의 률을 조절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받는 예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율을 올리면 시중유통통화의 량은 줄어들고 낮추면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둘째는 은행이자율(Bank rate)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자율을 높이면 많은 돈이 정기예금으로 흡수되고 대출이 줄어들어 유통통화는 줄어들고 경기는 후퇴하지만 물가상승은 줄어든다.

여기서 지나쳐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는 통화량을 조절하기위해 지불준비금률의 변경에 많이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은행이자율을 이용한다. 이는 중동산유국이 원유가를 대폭 인상, 인플레이션율이 심하게 되자, 전통적인 온전한 방법의 지준율 변경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장 강력한 치유제인 은행이자율의 변경, 그것도 대폭적인 변경으로 치료하려 했기때문에 그 결과는 빨리 나타났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그만큼 커져 그 영향이 국민 생활의 구석 구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작년 여름 물가상승률이 년 18%선으로 추정되자 미국은 사상 유례없이 우대금리를 21.5%까지 올렸고 그 결과 물가는 진정되었지만 부작용으로 9.4%의 실업률과 심한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됐다.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첫째 공장가동률(plant utilization rates)이다. 4월달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작년 동기의 79.8%에 비해 71%로 떨어져 있고 캐나다는 69.7%로 20년래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이윤이다.

미국의 82년 1/4분기 기업이윤은 81년 4/4분기에 비해 17.5%가 떨어져 분기별 하락으로는 1953년 4/4분기의 21.7%와 1980년 2/4분기의 19.9%에 이어 대공황 이후 3번째로 낮은 률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82년 2/4분기 기업이윤은 1/4분기에 비해 29%가 떨어졌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캐나다의 경기는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심화되어 있고 월별이 아닌 분기별 실적으로 볼 때는 경기회복의 징조는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경기침체가 일단 오면 그 지속기간이 계속 점점 더 길어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7-58년의 경우 6개월정도이던 것이 1969-70년에는 1년, 1973-75년에는 1년6개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아마 2년은 지속된다고 보아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북미경제가 통화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통화정책은 은행이자율(Bank rate)의 변경에 의해 운용이 된다면, 이자율이 내려와야만 경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호에서는 이자율은 언제쯤 내려올 것이며, 이자율이 내려옴으로 다음의 호경기 싸이클을 맞이할 때 어떻게 투자에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보겠다.

톰·왓슨 우승

니크라우스 저지

(페블비치=캘리포니아) 프로·골퍼 톰·왓슨이 U.S. 오픈챔피온 5연패를 노리는 잭·니크라우스를 물리치고 상금 6만달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골프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날의 왓슨 성적은 2·언더파(-2) 70으로 4일간의 총점은 282였다.

왓슨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은 페블비치골프장의 가장 난코스로 알려진 17번째 홀로 16피트 거리에서 퍼트에 성공, US오픈의 82년간 역사상 최초로 버디(-1)를 기록했다. 니크라우스는 이날 69점이었으나 종합성적은 왓슨보다 2점이 많은 284점이었다.

왓슨은 경기후 "버디를 올린 이 샷을 위해 나는 계속 연습해왔다. 나는 홀 근처로 친것이 아니라 한번에 넣으려고 홀을 겨냥했던 것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보비·크램페, 빌·로저스, 댄·폴은 총점 286점으로 동률 3위를 이루었다.

교 민 동 정

◆장연탁(조각가)=뉴욕의 웨스트·브로드웨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성공리에 열고 토론토로 돌아왔다.

장씨의 문화·예술의 본고장 뉴욕데뷰전은, 의외로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미술평론지 "아트스피" 지는 특히 그의 다음 전시회를 참을성있게 기다린다고 칭찬했다.

= 정 정 =

21일자 1면 금리 기사 첫 글무리(문단)중 「최우대금리를 8.2%」라 한것은 18.25%의 잘못이기 바로 잡습니다.

같은 신문 1면 「서울판」 기사중 2번째 글무리에서 「태권도(손명수 도장)등을 정기적으로 보이고」라 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인태권도협회 산하 도장들의 시범을 정기적으로 보이고」로 고칩니다.

〈야구상식〉 <4>

주루상의 규칙및 수비방해

앞의 주자를 앞지르면 아웃

박재선(리틀야구대회 진행위원장)

◆박재선 씨

◆주자는 안전하게 진루함(8-5)

1)수비선수가 주자에 대해 옵스트락숀을 범했을때이며 주자는 방해가 있었을때 가려고하던 그 베이스에 가게된다.

2)투수의 투구가 펜스를 넘어갔을때 주자에게는 1루만 진루시킨다. 이것이 제4볼일때는 타자는 1루에만 간다.

3)투수가 불법으로 투구하였을때인데 이때 경기는 데드.

4)수비선수가 친 공을 모자, 마스크, 글로브, 유니폼등으로 접촉했을때.

이때 이들 용구는 있어야할 자리에 착용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주자는 자기베이스에 돌아가야함(8-6)

1)화울공을 받지 못하던가 아니면 불법으로 받던가 할때

2)불법타격을 선언했을때

3)타자 또는 주자가 인터훼렌스하여 아웃당할때 다른 주자는 마지막 갖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함.

4)타자가 투구를 스윙했는데 맞지않고 그 공이 타자에 맞았을때

5)타자가 투구에 맞았을때 단 밀려서 진루되는 것은 할수없다.

6)노아웃 또는 1 아웃때, 주자는 1루, 1루와 2루, 1루와 3루, 또는 만루때 내야수가 평범한 노력으로 받을수 있는 훼어비구(라인드라이브, 번트포함)를 받았다가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을때

◆1루에 가고 있는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8-7)

1)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떨어뜨렸을때 1루에 미처 가기전에 수비선수에 의하여 공이 탗치되던가 공을 1루에 있는 선수가 잡고 있을 경우.

2)훼어볼을 쳤을때도 상기 1항과 같다.

3)3피트라인 밖으로 뛰어갈때 수비선수가 1루에 송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심판원이 생각할 경우임. 단 수비동작을 피하기 위한것은 상관없다.

4)수비동작을 하고있는 야수를 인터훼렌스했을때 만약에 이 인터훼렌스가 분명히 더블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한것이라고 심판원이 판정하면 홈푸레이트에 가장 가까운데 있는 주자도 역시 아웃된다.

5)홈인하는 주자가 분명히 아웃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홈에서 인터훼렌스하면 주자와 함께 아웃됨.

6)훼어지역에 친 공을 타자석 밖에서 탗치했을때, 이 때 경기는 데드.

◆주자는 아웃됨(8-8)

1)주자가 수비의 촉구를 피하기위하여 베이스파-스(베이스간의 연결하는 선에서 3피트이내의 지역)를 벗어나서 뛸때.

2)포-스아웃되는 경우, 공으로 태그하든가, 주자가 도착하기전에 베이스에서 공을 갖고 있을때.

3)앞에가는 주자를 앞질러서 갈때.

4)비구를 받기전에 베이스를 떠났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할때.

5)베이스를 하나밟지 않고, 통과했을때 촉구당하면 아웃.

6)홈인할때 홈플레이트를 탗치않고 나온후, 수비가 공을 가지고 홈플레이트를 밟으면 주자는 아웃.

위의 4,5,6항은 압필플레이 임. 이 압필은 다음 투구전에 해야한다.

7)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던진공을 방해했을때.

8)타구가 내야수(투수는 제외)를 통과하기전에 주자에 맞으면 아웃.

9)또는 아웃때 주자는 3루에 있는데, 타자가 홈플레이트에서 방해할때.

10)인플레이때 같은 팀 주자가 아닌 어떤사람에 의하여 신체상으로 주자를 도와줄때.

11)3루쪽의 코치가 홈을 향하여 뛰어감으로써, 공을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혼란을주어 공을 홈에 던지도록 유인하게 된다. 이때 3루에 가까운 주자는 아웃된다.

12)주자가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므로서, 수비진을 혼동시키고 경기를 웃음꺼리로 만들때.

13)코치가 고의적으로 던져진 공을 방해했을때.

14)아웃을당한 주자든가, 점수를 낸 주자가, 고의적으로 수비선수가 다른 주자에 대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것을 방해했을때. 홈에 가장 가까운 주자는 아웃된다. 이때 경기는 데드. 주자는 아웃. 다른 주자는 마지막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15)노리드오프 원칙을 어겼을때. 즉, 너무 일찍기 베이스를 떠났을때.

◆주자는 아웃이 아니다(8-9)

1)베이스파-스 안에서 공을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야수의 뒤에서 베이스라인 밖으로뛰는것은 무방하다.

2)베이스간 직선상의 야수가 공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자는 직선상을 뛰지 않어도 된다.

3)타구가 내야수(투수는 제외)를 통과한후에는 주자에 맞어도 아웃이 아님.

4)야수가 견고하게 공을 잡지못하고, 탗치한것은 아웃이 아니다.

5)수비팀이 다음 투구가 있은후까지 심판원이 판정에 압필플레이를 하지 않았을때, 주자는 무사하다.

6)1루에 진루한 주자가 베이스를 밟은후, 베이스를 지나서 나갔다가 베이스로 곧바로 돌아올때.

7)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때. 단, 방해하는 목적이 아닐때.

8)타구가 내야수(투수포함)에 탗치한후, 주자에 맞아도 무방함.

9)야수가 규격에 맞지 않는 그로브를 사용하면서, 주자에 대한 플레이를 할때, 주자는 아웃이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성전봉헌예배

할렐루야!
본교회에서는 새 성전을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봉헌예배를 드립니다.

* * *

일 시: 1982년 6월20일(주일) 오후 7 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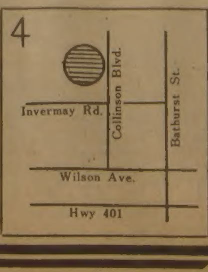
성전봉헌부흥성회

본교회에서는 성전봉헌과 아울러 믿음의 귀한 여종 안이숙 여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나누 시기 바랍니다.

* * *

일 시: 1982년 6 월24일(목)~27일(주일) 매일 오후 7 시30분

장 소: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당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전 화: 636-1724, 755-1528



당회장 목사 김 용 출

제2회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금년에도 교민친선 골프대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1982년7월11일(일) 오전11시 정각
장 소: FIRE FIGHTER GREEN GOLF CLUB
(1 Mile North of STOUFFVILLE Side Road on Woodbine Avenue)
참가비: $30 00(Buffet Dinner 및 주류포함)
상 품: GROSS 1·2·3등 NET 1·2·3등
NEAREST HOLE LONGEST DRIVER
HONEST HOLE IN ONE 기타상품
연락처: 김영규 535-9541 박경윤 921-6397
김성규 757-7828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선착순 55명에 한합니다.

주최: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美製미사일로 蘇聯製 SAM-6미사일 박살

시리아미사일쏙발

이스라엘에 「눈의 가시」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침공을 계기로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동부레바논 베카계곡에 설치된 시리아의 소련제 SAM미사일기지들을 강타했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에따르면 모두 19기의 미사일기지중 17기는 완파되고 2기는 대파되었다. 레이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초정밀무기인 SAM-6미사일을 이스라엘은 한대의 전투기도 격추당하지않고 철저히 때려부셨다는것이다. 미국정보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의 주장이 과장된 것일지 모른다면서도 사실일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보고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미 월남전에서 실험을 끝낸 미사일과 전자장비로 SAM-6를 공격, 소련의 위신에 타격을 입힌것이다.

군사및 산업계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작전은 지난81년 4월29일 시리아가 베카계곡에 소련제 SAM을 반입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믿고있다.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가 레바논영내에서의 군대사용에 관한 이스라엘-시리아간의 협약을 위반했다고 간주했다.

이스라엘, 전투기1대 손실없고

월남전에 쓰인 대방사선미사일 발사

군사분석가들은 지난 수주일전 이스라엘은 베카계곡상공에 무인비행기를 날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원거리 조종장치가 달린 무인비행기는 때때로 공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소련제 SAM미사일기지시설에서 방출하는 레이다시그널을 탐지·분석하는 특별사명이 부과됐다.

이스라엘제 스카우트 무인비행기는 시리아미사일의 공격에 대량 격추되었다. 그러나 시리아레이다의 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레이다교란프로그램을 고안할수있게 했던것이다.

이스라엘군의 전자교란전파는 주로 보잉707S기가 시리아미사일사정권밖을 빙빙 선회하면서 내보냈다. 그밖에도 미제 F15기및 F16기들이 동체밑에 달린 특별보조탱크에 전자대항장치를 싣고다니다가 시리아레이다를 교란시켰다. 이전자교란장치는 시리아레이다가 내습기를 탐지할수없게 만들었다.

미제 대방사선미사일은 이번에도 시리아의 미사일기술을 압도했다. 월남전당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슈라이크미사일과같은 계열의 무기로 알려진 대방사선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발사된다음 레이다빔을 겨냥해 나간다.

슈라크 미사일을 방어하는데는 두가지 수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전자 반대항조치로서 내습미사일에 분실된 레이다빔을 방사, 빗나가게 하는것이고 또하나는 대방사선미사일에 추적신호를 보내지않음으로써 일시에 레이다를 간단히 폐쇄시키는 것이다.

시리아미사일부대원들은 후자를 택했음이 분명하며 반면에 이스라엘파일로트들은 재래미사일을 발사, 추적신호를 안내보내는 시리아군에 대응한것으로 미군사전문가 들은 믿고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SAM미사일이 이스라엘전투기를 크게 희생시킨 1973년 중동전이후부터 이같은 전자기술을 발전시켜왔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한편 미국방성은, 최근 미군사사절단을 이스라엘에 파견,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포획한 소련제무기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73년 중동전 직후에도 이스라엘이, 포획한 소련제 T62탱크및 SAM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옮겨 기술및 성능을 검사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레바논침공시에도 소련제 최신병기의 하나인 신형탱크를 포획한것으로 알려졌다.

개구러기 수상아들—유럽방문을 마친 캐나다 트뤼도수상의 귀임시간을 기다리던 아들형제가 사소한 시비로 장난도중에 동생 사샤군이 형 저스틴의 턱에 한방먹이고 있으나 형답게 맞으면서도 여유있는 표정. 〈오타와— 〉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

어떤 情事 ⑪

사나이는 그녀의 5층 방에까지…

그녀의 방은 5층에 있었다. 사나이는 그녀를 방에까지 안다시피 하고 데려갔다. 그녀는 방문을 연다음 돌아섰다. 그리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이젠 돌아가세요.』

사나이는 벽에 손을 짚고서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갈데가 없는데…』

그녀는 킥킥거리고 웃었다.

『그럼 나보고 재워달라는 거에요?』

『네, 부탁이에요.』

그는 아주 순한 양처럼 말했다. 문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또 웃었다.

『그건 안돼요. 당신이 짐승처럼 달려들면 난 당해낼 힘이 없어요.』

『난 그러지 않아요.』

그는 진실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피이,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럼 술 한잔 사줘요. 술만 마시고 갈테니까.』

『좀 곤란한데…』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문을 열었다.

그녀가 먼저 들어가고 남자가 뒤따라 들어갔다. 사나이는 손을 뒤로 뻗어 고리를 걸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문자는 안으로 들어가 스탠드의 불을 켠 다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술 할래요?』

『……』

그는 어느새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뭐 마실래요?』

『당신을……』

『뭐라구요?』

그는 풀이 쳐진 와이셔츠를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으로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벗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고 아랫도리까지 모두 벗어버렸다.

『어머나 어서 입어요!』

그녀는 어린애처럼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반대로만 행동했다. 옷을 입기는 커녕 장승처럼 우뚝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옷을 입으라니까.』

『그럴수 없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살며시 벌려 눈앞에 전개된 광경을 훔쳐보았다. 흉물스러운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가슴에서 내려온 털이 밑에 내려 오면서 완전히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눈이 침침해지고 숨이 가빠왔다.

빼만앙상해보이는 남편의 왜소한몸이 눈앞에 어른 거렸다. 남편은 모든 조건에서 이사나이와비교가되지않았다. 이사나이는 전율을 느끼게 할만큼 흉물스럽고 거대했다. 그것은 마치 무자비한 침략자 같았다. 육체는 군살하나 없는 근육질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면서 질겁하고 손으로 후려쳤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다시 한번 후려쳤다. 그러자 더욱 성이 나서 마치 코브라의 머리처럼 돌진해 왔다.

朴 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및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젓,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구 한국일보 독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경동고등학교동창회

경동동창 여러분, 부디 가족 동반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야외에서 즐기십시다!

일 시 : 7월10일(토)
장 소 : GLEN HAFFY 컨서베이츤파 (FORESTVIEW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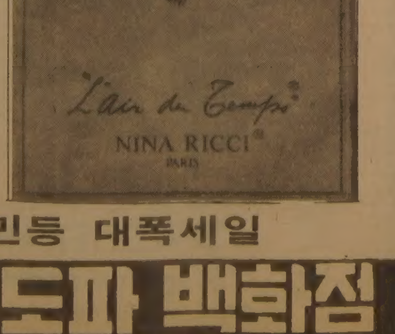
연락처 : 장진무 494-5308
백운산 624-3849
이춘수 536-2243

경동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장진무

여름보너스 스페샬세일

프랑스향수 NINA RICCI

1개 사시면, 1개 보너스



⊙각종 한약·비타민등 대폭세일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캐나다
全대통령, 5개國 巡訪
8월17일 登程…14泊15일
對阿洲 경제·외교領域 확대
加와는 友好협력관계 재확인
相互관심사·交易증대등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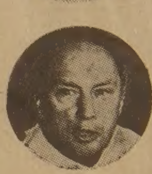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등 4개국과 캐나다를 오는 8월17일부터 31일까지 14泊15日간 차례로 공식방문한다고 17일 하오 서울과 巡訪國수도에서 同時에 발표됐다. 黃善必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全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 및 캐나다巡訪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은 巡訪國 국가원수들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가봉, 세네갈, 캐나다등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원수들의 訪韓에대한 答訪의 성격을 띠고있다』고 밝혔다.

◇모이 대통령

◇샤가리 대통령

◇봉고 대통령

◇디우프 대통령


◇트뤼도加首相

全대통령은 巡訪기간중 케냐의 다니엘·토로이티치·아랍·모이 대통령, 나이지리아의 세후·샤가리 대통령, 가봉의 엘·하지·오마르·봉고 대통령, 세네갈의 아브두·디우프 대통령및 캐나다의 피에르·트뤼도수상등 巡訪國지도자들과 각각 頂上회담을갖고 최근의 국제정세및 지역정세에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관심사와 各분야에 걸친 협력강화방안등을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黃대변인은 밝혔다.

全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방문은 제5공화국출범후 미국과 아세안5개국巡訪에 이어 3번째나들이며, 특히 아프리카방문은 建國이래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다.

全대통령은 아프리카巡訪을 끝내고 캐나다를 방문하기에 앞서 2泊3日간 大西洋의 遠洋漁業前進기지인 라스팔마스에 寄着, 遠洋어업관계 종사자들을만나 漁撈활동상황에관해 보고를 받고 이들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黃대변인은 밝혔다.

全대통령의 정확한 出國일자와 수행원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고위당국자는 全대통령의 이번 巡訪에관해 『국제정치상 아프리카대륙에서 비중이크며 北傀와도 동시修交하고있는 이들 아프리카4개국에대한 공식방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진출領域을 확대하고 외교적으로도 우리의 행동반경을 넓혀주는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아프리카는 제3세계에서 정치·외교면에서 한 중심세력을 이루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 未개발된 풍부한자원을 보유한 대륙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확보와 건설참여, 수출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全대통령의 캐나다방문에 대해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전통적인 友好관계를 유지해온 血盟의 우방이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도 심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5만명의 僑民이 거주하고있어 이번 방문은 旣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당국자는 이어 『이번 巡訪은 제5공화국 출범후의 국내안정을 바탕으로 88서울올림픽유치등으로 한국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외교가 전통적인 友邦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세계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多元외교로 발전하고 있음을 과시하게 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의 巡訪日程은 다음과 같다.

▲케냐=8월17일~19일▲나이지리아=19일~22일▲가봉=22일~24일▲세네갈=24일~26일▲라스팔마스=26일~28일▲캐나다=28일~31일

스리랑카 國會議長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스리랑카의 모하메드·알울·바키어·마카국회의장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丁來赫 국회의장 禹炳奎사무총장과 朴贊鉉 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前後期大 1개씩만 志願
83년大入전형要綱確定
3개學科志望 현행대로
追加모집은 專門大전형과 同時 실시

문교부는 17일 전·후기 각 2개대를 지원할수있는 현행 복수지원제를 1개대지원제로 바꾸는것을 골자로한 8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방법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에의하면 내년도 대학입시는 지망과정에서 종래의 눈치작전과 허수경쟁등부작용을 줄이기위해 한번에 2개대를 지원하는 복수지원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후기별로 각각 1개대만 지원할수있는 단수지원제로 전환하며 금년까지 5차례였던 응시기회(전·후기 각2차와 추가모집)는 3차례로 줄였다.

또 1개대로 국한시켰으나 동일대학내에서는 종전과같이 2~3개학과를 동시에지망하는 복수지망제는 남겨두는한편 전문대의 전형을 전·후기추가모집과 동시에 실시하도록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전·후기 배열은 현재상태로두고 전기대가 후기대로 전환하는것은 계속 권장키로했다.

그러나 내년도 대입시에서 도 수험생들에게 전·후기의 안배가없이 지원의폭과 응시기회를 대폭줄임으로써 허수경쟁은 줄인다하더라도 정원미달사태는 더욱 심화될것이고 이에따라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문교부는 현행제도의 골간을 그대로두고 지원방법을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대입전형방법을 확정했는데 종전과달라진것은▲국·공립 사범계열학과는 출신고교장의 추천서를 의무화하고▲전문대를 육성키위해 신입생모집시기를 전·후기 추가모집과 같게 하며▲고교내신성적중 출석성적산출은 종래의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인것등이다.

내년도 대입시에서 2개대를 지원할경우 합격이 무효화되며 금년과같이 대입학력고사성적은 50~70%, 고교내신성적은 30~50%반영되고 입시총점도 종래와같이 4백85·7점(학력고사 3백40+내신중 교과성적 1백31·1+〃출석성적14·6)이다.

이밖에도 이번 문교부발표와 관계없이 내년도부터 고교내신 성적은 1·2·3년전 학년의 성적이 반영된다. 그러나 82년도 졸업자는 2·3년부분만, 81년도 졸업자는 3학년에한해 반영된다.

그동안 논의해왔던 대입시에서 면접의 점수화와 논문시험은 일단유보하고 계속연구검토키로했다.

지원 동일 대학안에서는 복수지망을 허용하되 인문·자연계열간의 교차지망은 금지한다. 복수지망의 범위는 각 대학의 자율에맡긴다.

계열별또는 학과별 모집도 각대학의 자율에맡기고 지원자의 성적분포는 공개하지않는다. 그러나 지원자 현황은 접수마감까지 수시로 발표토록하고 접수마감후에도 지원상황공개를 권장한다.

학력고사 지원에앞서 개인별계열(인문·자연)또는 남녀별로 나눠 공개해 지원에 참고토록 한다.

전형 전·후기 각한차례씩의 기회와 전·후기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때 전문대학도 함께 1차모집을 실시한다.

대학의 재량에따라 학력고사응시계열과 같은 계열지원자에게 학력고사점수의 10%이내에서 가산점을줄수있다.

내신성적 반영률과 반영내용(교과성적+출석상황)은 종전과같다. 다만 종전의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게되는데 종전의 제6등급(20일이상 장기결석)을 5등급에 포함시킨다.

검정고시 출신의 내신성적은 학력고사성적에따라 등급을 부여하지만 82년도에 비해 추가로상향조정키로한다.

사범계열및전문대 국·공립사범계열학과지원은 출신고교장의 추천서를 의무화한다. 사립은 추천서를 권장키로하고 앞으로는 의무화로 전환하도록유도한다. 면접과 신체검사도 강화한다.

전문대는 전·후기대 추가모집과 모집시기를 같이하게 돼 적극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수있으며 대학과의 차

來週에 3黨대표會談
「青瓦臺회담」 後續조치등 논의

青瓦臺회담에 뒤이어 時局수습과 정치활성화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키위한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대표회담이 來週중 열릴것으로 보인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17일 『청와대회담의 합의에 따라 來週중 3黨대표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치활성화의 실마리를 푸는방안들을 3黨 대표線에서 원칙적인협의를 거친후 실무자회담에서 조정되는 절차를밟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3黨대표 회담에서는 청와대회담에서 제시했던 국회법 언론기본법 선거제도 개선문제등을 제기할 생각이며 국회활성화등 민주화발전을위한 제반문제가 폭넓게거론될것같다』고말했다.

한편 民正黨은 青瓦臺회담을 계기로 國政을 쇄신하고 그동안 잇단 大型사고로입은 상처와 흐트러진 民心을 수습한다는 확고한 방침아래 來週의 3黨대표회담을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킬 방안을 모색중이다.

民正黨은 특히 李·張부부사건으로 실추된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충분히 알리기위해 소속의원과 전국의 黨조직을 통해 對國民홍보활동을 본격화하고 한동안 주춤했던 의식개혁운동의 구체적인 확산방안을 검토중이다.

등을 줄이게 됐다.

헤이그 連鎖회담
베긴―그로미코와

【워싱턴16日聯合】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미소관계와 레바논사태를 토의하기 위해 18일 그로미코소련외상및 베긴 이스라엘수상과 별도 회담을 갖는다.

法務部次官에 丁海昌씨
農振廳長 金文憲씨
農協會長 尹勳煥씨

정부는 17일 법무부차관에 丁海昌 서울지검검사장(사진㊨)을, 농촌진흥청장에 金文憲 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사진㊥)을 각각 임명, 발령했다.

尹勳煥 현농촌진흥청장(사진㊧)은 농업중앙회장에 내정됐으며 李得龍 현농협중앙회장은 오는7월2일자 임기만료로 물러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에 金東俊 농수산부축산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丁海昌법무차관略歷▲慶北大邱출신·45세▲서울大法大卒·제10회高試행정·사법과합격▲大邱지검검사▲서울·釜山지검제2차장검사▲서울지검검사장(81년12월)

◇金文憲농촌진흥청장▲全南咸平출신·51세▲全南大農大卒▲농림부농업자재관▲농진청기술진흥관·지도국장▲농진청차장▲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

◇尹勳煥농협회장▲全南咸平출신·53세▲서울大農大卒▲農振廳시험연구조정과장▲農振廳차장▲농수산부農産·殖産차관보▲농업기술연구소장▲農振廳長

檢察首腦 26명異動

大檢 次長 李明熙
大邱高檢長 李永旭
光州高檢長 金世權
研修院長 裵命仁
서울地檢長 李彰雨

정부는 17일 丁海昌 서울지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승진됨에따라 대검차장에 李明熙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하는등 법무부및검찰수뇌부 2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인사에서 정부는 大邱고검장에 李永旭법무부차관, 光州고검장에 金世權법무부기획관리실장, 법무연수원장에 裵命仁光州고검장, 서울지검검사장에 李彰雨대검공안부장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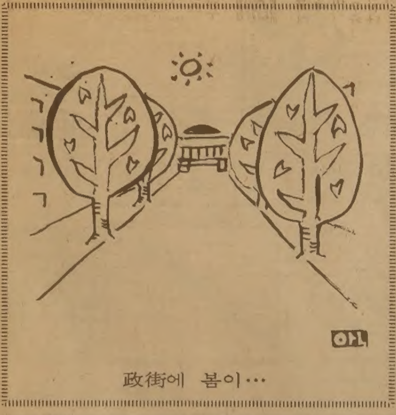
추가引責改閣
빠르면 금주중

全斗煥 대통령은 3黨대표와 가진 청와대회담에서 밝힌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한 추가引責改閣은 빠르면 금주안으로, 늦어도 내주말까지는 단행될것으로 보인다.

정계 소식통은 17일 지난 5·21改閣때 李雄熙 당시 청와대대변인이 『기획원과 재무부장관은 李·張사건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사태의 뒷수습이 책임보다 훨씬 중요한것으로 全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任命權者가 更迭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대상자들이 드러난에 따른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각료경질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政界관측통들은 18일부터 오는24일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 弔問사절로 다녀오게된 劉彰順국무총리의 日程과 관련, 경질대상이 主務장관으로만 국한될경우 금주내로단행될것으로보이나 國政刷新의 차원에서 改閣대상에 총리가 포함될경우 劉총리가 귀국하는내주말께나돼야 내각개편이 이뤄질것으로전망했다.

社會漫評



政街에 봄이…

地平線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치마·저고리는 그 기본구조가 기능주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아름다운 것이다. 일본여성의 「기모노」가 허리띠를 강조한 나머지 등짐을 지고있는 모양이 된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하늘과 땅의 차이」도 서양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뚜렷한것같지 않다. ▼작년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사진잡지 「라이프」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소녀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기모노」라고말했다. 사진작가나 편집자가 무식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치마·저고리가 세계적인 걸작품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사람에겐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라고 하지않을 수없다. 남의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도 되는 것이다.

▼우리에겐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과의 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포토맥연구소는 치마·저고리가 기모노로 둔갑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있다. 이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81%가 한국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는나라로 알고있다고한다. 한국을 잘안다는 사람은 겨우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6·25의 비극을 무대로한 야전병원 영화〈매쉬〉는 미국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식공급원이다. 93%가 이영화를 봤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한국이 그보다 낫다는 사람은 31%에 지나지않았다.

▼포토맥연구소는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있다. 그중에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계 이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한국계 이민인구는 지금 미국의 동양계인구중에서 중국·필리핀·일본 다음으로 큰 집단이다. 아마도 46만쯤 될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金環東교수에 의하면 한국이민의 특징의 하나는 높은 학력에있다. 25세이상으로 대학졸업이상이 인종별로 봐서 백인의 11.6%, 일본인 15.9%, 필리핀인 22.5%, 중국인 25.6%인데 한국인은 자그마치 36.3%다. ▼한국계 이민의 특징은 「밥벌이」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을 강조할수있다. 또하나 金교수는 한국이민의 특징은 미국사회에서 고립과 격리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치마·저고리가 기모노로 둔갑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또한 두나라의 우호는 문화적·사회적인 「일체감」 위에서만 더욱 발전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략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와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최훈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江戶 太鼓壽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美、레바논 새平和案추진
強力한 中央정부 구상
當事國들에 支持호소
이"美主導的역할 기대"

【워싱턴16日AP=聯】미국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으로 빚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기위해 외국군철수후 레바논을 통치할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을위한 레바논평화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는 현재 이같은 계획과 관련, 이스라엘·레바논및 시리아를 순방하면서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레이건 미행정부는 모든 당사국들에 대해 하비브특사의 노력을 지원해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美정부는 레바논에 유엔평화유지군을 계속 주둔시키는것을 바라고 있으나 미군을 파견할것인지의 여부는 결정짓지 못하고있다.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미군의 파견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베이커 美상원공화당 원내총무는 어떤 이유로도 미군의 레바논파견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정부는 미국이 레바논사태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하고있으며 미정부측도 그같은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려하고있다.

◇항복·버려진 소총더미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英國軍에 포로가된 아르헨티나軍병사들이 포트스탠리 외곽지에서 英國해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을 서서 그들의 소총을 한곳에 쌓고있다. 【포트스탠리17日AP합=聯】

레바논平和軍 장래문제協議
11個國대표

【유엔本部17日UPI=聯】레바논에 주둔하고있는 유엔평화유지군에 군대를 파견한 11개국 대표들은 16일 유엔평화유지군을 계속 주둔시킬것인지를 협의하기위해 회동했다.

이軍、팔指揮거점 점령
게릴라 脫出口를 봉쇄

【베이루트·텔아비브16日UPI=聯】레바논침공 이스라엘군은 16일 베이루트공항에 인접한 쉐이파트로 진격,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외곽지휘본부가 있는 레바논이과대학건물을 점령하는한편 베이루트남부교외에 대한 포격을 계속했다.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탈출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베이루트시내에 갇혀있으며 『이들의 목숨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埃、對「이」斷交안해
派兵가능성도 배제

【카이로17日AP=聯】부트로스·갈리 이집트외무담당국무상은 17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게릴라의 對이스라엘전을 지원하기위해 레바논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편 레바논사태로인해 對이스라엘외교관계를 단절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敗戰 갈티에리 軍政
週末께 붕괴될듯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17日UPI=聯】전쟁의 패배가 가져다준 對정부비난을 회피하기위해 필사적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갈티에리군사정부는 이번 주말경 붕괴될지도 모른다고정치군사소식통들이 말했다.

칼럼니스트이자 정통한 소식통인 이그레시아·루코씨는 『군사정부의 안팎에서 패전의 책임전가와 변명이 시작될 조짐이 이미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합참본부에서는 영국군이 포클랜드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만 발표했을뿐 아직 『항복』은 공포치 않고 있으나 국민의 對정부불신이 개전초와 달리 심각한 상태에 이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난국이 다시 갈티에리군사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지고있다.

"빈대" 잡으려고 「草家三間」 태운格이다"
이스라엘國民들、레바논에 「良心의 가책」느껴
무고한 죽음·파괴등"해도 너무했다"
勞動黨도"이미지 損傷" 政治문제化

集英外信

【텔아비브16日AP=聯】이스라엘군이 레바논침공을 시작했던 개전초기에 이스라엘국민들은 갈채와 격려로 이들을 성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련한 이웃인 레바논에 가한 죽음과 파괴의 선물은 이제 일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스라엘적십자사(마젠·다비드·아돔)는 레바논 난민들을 위해 의류와 모포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정부도 전쟁피해자지원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각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전쟁과파괴란 역시 비극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도시의 지하실이나 건물을 은폐물로 이용했기 때문에 티레나 시돈, 베이루트같은 지역이 포격의 대상이 된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부 저명한 지식인들은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했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저명한언론인인 마티·골란씨는 최근 하레츠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건초더미속에 들어간 바늘(팔레스타인게릴라)을 빼내기 위해서는 정교한 핀세트를써야지 불도저의 강판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골란씨는 이스라엘국민들로부터 유약한 좌익지식인으로 경원당하는 인물은 아니며 오히려 그의 견해는 충분히 경청되고 또한 존경을 받고있다.

골란씨는 특히 정부와 언론들이 일반국민들에 진실을 밝히지않고 있다고비난했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전쟁의 영웅적인 측면만이 투영될뿐『부모잃은 아기나 전쟁미망인, 피흘리는 노인』의 모습은 전달되지 않으며 비바람 막을 곳을 찾기위해 헤매는 수십만전쟁 난민들의 참상도 일반국민들은 알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정도 민간의 피해가 없이 전쟁을 수행할수는 없지만 부상자를 치료하는 이스라엘군의 모습만으로는 폭탄투하로 발생한죽음과 파괴의 피해를 은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설을통해 강경론을 주장하던 마리브紙까지도 레바논당국이 발표한 피해상황은과장된것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구호노력에참여할『윤리적 의무』를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레바논의 파괴참상은 이스라엘內에서도 이미 정치적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이스라엘의회의 한위원회에서 노동당지도자들은 베긴수상이 레바논 폭격을허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고 비난했다.

베긴수상은 이에대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2차대전당시 아돌프·히틀러 독일총통주위에 다른 20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역시 폭탄을 터뜨릴수밖에 없지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反越 3세력 聯政에 합의

【방콕16日AP=聯】캄보디아의 반베트남 3개저항세력은 3개분파로 갈라져있는 그들의 세력을 규합, 통일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따른『세력간의 권한분담』에 마침내 합의했다고 방콕의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같은 합의가 지난주말 중공의 지지를 받고있는 크메르루지군과 손·산 전총리가 이끄는 크메르인민해방전선(KPNLF)간의 고위회담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또하나의 반베트남세력을 주도하고있는 시아누크공은 민주캄푸치아의 대통령, 크메르루지 정권당시 수상이었던 키우·삼판은 외무담당부통령에, 그리고 손·산 前수상은 수상직에 각각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青瓦台회담 그後
野黨圈의 反應과 대책
「未知數조치」엔 기다려봐야
議案집약、「黨論정립化 예상

青瓦臺3黨회담결과에대한 野黨圈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肯定的인 분위기속에 부분적으로는 懷疑와 불만을 근심스럽게 나타내고있다.

主流를 이루고있는「肯定분위기」는 기대이상으로 對話가 진지한데다가 일부대목에서는「발전과 可能性」을 示唆하는 대답이 있었으며 따라서 긴眼目에서 앞으로의 後續조치에 희망을 걸수있다는 표정들이다.

民韓黨이 성명을통해『이번회담은 膠着된 政局, 특히 현안의 政治難題들을 푸는 실마리가될것』이라고 평가한것이나 黨간부들이 野黨에서 제기한 政治被규제자의 解禁, 정치범赦免, 평화적정권교체문제등에 黨입장을 전하고 理解를 얻게된것은 성과라고한것등은 이러한 肯定的분위기를 설명해주는것이라고 할수있다.

반면 회담내용에대한 일부의 불만은 과거처럼 크게 외치거나 눈에띄게 반발하는 형편은 아닌것같다.

이는 회담이 있었던것 자체가 우선 否定的으로 비쳐질수는 없고 또 회담에따른 후속조치가 아직 未知數로 남아있기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日可日否할수없다는 與件이 있긴하다.

회담을 끝내고 돌아온 柳致松 民韓黨총재나 金鍾哲 국민당총재도 한결같이『할말은 다했다』고 했지만『擧論만 했다고 할일을 다한것은 아니잖느냐』는 불만이 일부에서는 있는것 같다.

어쨌든 그동안 청와대회담을 획기적인 轉機로 기대했던 時流에 반해 당장 피부감있는 결과가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肯定속의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세는 어쩔수없는 반응인것같다.

사실 야당으로서는 현 시국이 危難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왔기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處方策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青瓦臺회담이 곧 萬病治의 靈藥일수 없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야당은 그러한 기대치에 완전히 부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미와 성과를 계산하고 있는게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한 領袖회담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졌고 그자리에서 평소 하고싶은말, 즉 야당의 요구는 모두 던져졌고 이제 남은것은 정부의 조치만 남았다는것이다.

野黨에서는 우선 큰성과로는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통해 통치권자의 時局수습에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한 점을 들고있다.

통치권자가 野黨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일부事案에대해「고려하겠다」는 반응은 政局완화와 현안해결에 희망을던져주는것으로 풀이하고있다.

동시에 통치권자와 야당의 時局觀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일련의 상황을 보는 눈에서「인식의 差」가 크지않다는데도 안도하는듯하다.

다시말해 이러한 인식의 近接은 지난날의 難局에 임하는 여야의 相衝된 갈등의 분위기에서 이제는 협조와 타협의 분위기로 바뀌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인 것이다.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後續조치의 시기와 범위등 사안에따른 緩急은 있겠으나「결코적지않은 變化」가 가능하다는 추측이다.

통치권자의 기본입장이 확연한 진대 굳이 부분적인 문제에서 흐름을 逆流시키는 시행착오란 있을수없다는 견해다.

사실 지난날의 기억되는 몇차례 領袖회담을 생각해 볼때 야당측의 이러한 樂觀的인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된다.

兩黨制下에서 강력한 통치권자의 寬容을 기대할수 있었던 지난날 領袖회담의 결과는「無반응」이거나「默契說」의 是非만을 남겼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이번의 경우는 多黨制下에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사실상 공개된 회담으로「예측가능한 반응」이 나왔다는데 야당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적인 반응의 뒤에는 부분적으로 아쉬움과 불만이 흐르고 있으며 領袖회담에 대해 근본적으로 視角을 달리하는 견해가 없는것도 아니다.

청와대회담직후에 소집된 民韓黨의 당무회의에서는 이류의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국민당의 확대간부회에서도『왜 即答을 못받아왔느냐』고 불만과 반발이 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辛相佑의원의『어떤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일뿐이다』高在淸의원의『할말을 다했다면 납득할수있는 후속조치가 따라야한다』는 지적은「未治」에 대한 黨內흐름을 한마디로 반영한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민당의 李聖秀·金基洙의원등은『대통령의 斷案을 기대했는데 斷案의 성격을띤 대답이 없으니 문제는 계속되는셈』이라고 懷疑的인 의견을 보이기도했다.

특히 17일의 民韓黨 의원총회는『청와대회담의 소득이 무엇이냐』고 成績表를 내어놓으라는요구도 튀어나왔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의 議總에서는 柳致松 총재의 이번회담의 接近이 한동안 비판의 대상이됐다.

의원들은 時局을보는 눈에서 정부와국민 與와野의 거리감은 종처럼 좁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野와 국민간에는 認識의 差가없느냐는 근본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

이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이대로 넘어갈수 없다』『우리의주장을 계속제기해야한다』『또다른 용기를 다져야 되겠다』는 소리들은 회담결과자체에대한 否定과 反論이라기보다 보다충실한 후속조치를 갈구하는것을 촉구하는 말들이었다.

이러한 의원들의소리는 青瓦臺회담자체나 그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青瓦臺회담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걸음 더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않느냐』는 채찍질의 성격도 많았다.

즉 青瓦臺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면 野黨으로서도『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할것이 아니라』새로운 자세나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것이다.

특히 이들의원들은 후속조치를 구체화시키기위해서는 그동안 제기해왔던 정치 懸案등 제문제를 당내에 집약시켜 당론으로 정립시킬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미루어 야당권에서는 青瓦臺회담의 결과를 구체화시키기위한 특별기구의 구성도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청와대 회담을 보는 야당의 눈은 종래의 타성적 비판의 자세와는 달리 적극적인 인식의 바탕을 토대로 스스로의 領域을 넓혀야할 시점임이다.【李成俊기자】

5分間 인터뷰
戰略문제硏소장 포스터博士
38線그은건 美政策의 실수
한국의成長 결국 北韓흡수
金日成후계 결정 前後가 고비

◇金日成후계자결정문제가 본격화되면 한반도내의 정세가 한바탕 고비를 치를것이라고 말하는 리처드·포스터박사.

미국의 저명한 東北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리처드·포스터박사가 15일 漢城大學(학장 姜秉奎)부설 산업발전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했다.

포스터박사는 미국 학계와 정계에 다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스탠퍼드研究院 국제위원회(SRI International)소장.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는 원래 스탠퍼드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가 그동안 급성장, 지금은 스탠퍼드대학을 능가하는 규모와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다.

SRI국제위원회는 SRI의 고참멤버들이 모여 따로 중요국제문제만을 다루기위해 모인 전문기구.

東西냉전이 한창이던 1950年代末경에도 SRI국제위원회는 모스크바를 오가며 민간베이스로 美蘇대화를 가진 경력을 갖고있다.

포스터전략문제연구소장은 이번이 5번째의 한국방문이라고했다. 『내가 한국을 자주 찾는 이유는 위협한 外交반도에 美·蘇·中共·日本·남북한등의 복잡미묘한 外交線들이 얽혀있는 한반도를 옆으로 돌리고는 현금의 국제정세를 논할수 없는 입장이다.』

포스터박사는『한반도에 38선을 긋게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일본은 물론 소련과 중공도 대체로 한반도에 또하나의 전쟁이 터지는것을 우려하고있어 그런대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안전문제는 金日成후계자결정을 전후하여 중대한 고비를 맞게될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은 지금 金日成권력이양문제를 놓고 내외간의 큰 격동을 내포하고 있다는것.

소련·中共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金씨 세습왕조가 탄생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공산주의가 봉건체제와 친하다는 세계비평을 듣지않으려는것일뿐아니라 북한이 가족적정권을 굳히면 黨을 통한 영향력행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공이나 소련은 金日成의 죽음으로 개인위주아닌 집단지도체제의 黨중심정치가 수립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소련이나 중공모두 자기편에 가까운 黨權派들이 새정권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있다.

이런 黨집단지배체제는 西方측이 바라는것이기도 하다는것. 소련이나 중공이 黨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정도의 간접적이긴하지만 西方측의 의도가 전달될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포스터박사는 北韓이 경제、사회、문화、군사등 全般的 차원에서 영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차대전전의 나치정부보다도 훨씬 강력한『역사상 최대수준의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강력한 동원체제는 자칫하면 소련이나 中共이 또하나의 전쟁에 터뜨릴지도 모를 위협성이 없지않다고 말하면서 포스터박사는『결국 안정된 한국의 성장이 어느시점에서 北韓을 흡수하게될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래서 깊은 눈으로 보고있다고 리처드·포스터박사는 말했다.

포스터박사는 16일 오전10시 한국일보社빌딩 12층 강당에서『強大國 東北亞전략』이란 연제로 강연했다.【鄭逸和기자】

PLO게릴라 武裝해제등
"對美직접協商용의"

【베이루트16日UPI·AP=聯】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16일 美國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레바논내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무장해제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레바논 국영TV가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의 정치고문 하니·엘·하산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엘·하산고문은 아라파트와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이 이날 베이루트수호에 관한 1시간동안의 회담을 마친뒤 PLO측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레바논TV는 전했다.

레바논정부에 미국의 승인과 PLO지도자들의 베이루트 탈출보장、이스라엘과의 장래평화협상에서의 역할보장등의 조건하에 서베이루트에서의 무장해제를 토의할 준비가 돼있음을 통고했다고 레바논관변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武裝해제討議준비

【베이루트16日AP=聯】이스라엘군에 포위돼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回敎 해방군創設
이란·리비아회담

【런던16日路透=聯】이란과 리비아는 공동으로『회교해방군』을 창설할것이라고 이란관영IRNA통신이 16일 보도했다.

IRNA통신은 15일 이란을 방문중인 리비아대표단과 이라프산자니 이란국회의장등 이란고위관리들간의 회담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內外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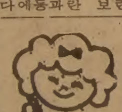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17일 아이슬란드의 제38회 共和國선포일을맞아 핀보가도티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全斗煥 대통령은 17일 지난9일 과테말라 공화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몬트장군에게 축전을보냈다.

人事異動

農水產部 ▲畜產局長 宋燦源(動物檢疫所長)(17日字)

總務處 ▲총무국장 金慶濟(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533－2361

메아리

전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온통 스페인에 쏠렸다. 제12회 월드컵축구 1차리그가 한창 불을 뿜는 중이다. 「이변」이 잇달고 환성과 탄식이 엇갈린다.

축구처럼 의외성이 강한 경기는 드물다. 공은 둥글다는 말이 이번에도 실증되고 있다. 개막어전 도도박사들의 예상점괘가 흔들린다. 냉철한 박사들은 브라질의 우승을 2대1의 확률로 내다 보았다. 반면 최소우승확률은 카메룬, 알제리, 온두라스-. 겨우 2천대1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더욱 낮추내려 보아 5천대1쯤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변은 일기시작했다. 최하위권을 맴돌것으로 예상했던 알제리가 강호 서독을 물리쳤다. 카메룬은 페루에, 온두라스는 스페인에 각각 비겼다. 호랑이가 벌에 쏘인 격이다.

월드컵 우승전적을 돌아보면 남미와 유럽의 강세는 철벽같다. 브라질이 3회, 서독、우루과이、이탈리아가 2회씩, 영국과 아르헨이 한번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개막전은 세계 7억의 인구가 텔리비전 인공위성중계를 통해 동시에 시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녹화방영으로 그 화려한 장면을 보았다.

월드컵과 TV

요즘 국내프로야구까지 겹쳐 스포츠황금시즌이 펼쳐지고 있다. TV프로에 스포츠중계가 압도적이라고 할만큼 많아졌다. 우리는 5개의 채널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버렸다.

미군방송인 AFKN이 미국 프로야구를 중계한 같은일시에 국내 두TV채널도 국내야구에 카메라를 맞추었다. 야구일색이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스포츠를 즐기더라도 꼭 야구만을 시청해야할 까닭은 없겠다. 우리 텔리비전 프로가 너무 다양성을 잃어가고 안이한 제작을 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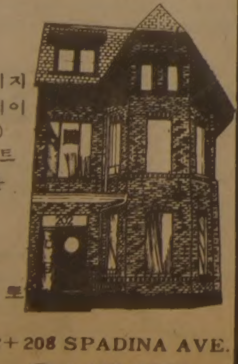
월드컵 개막과 함께 두 방송국이 심야의 같은시간대에 녹화중계를 하고 있다. 승패와 스코어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경기를 두 방송국이 경쟁하듯 모조리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더운 날씨에 지친 어린이들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며 TV에 붙잡아 두는 것은 못마땅하다.

프랑스의 한 의사는 TV병으로 두통, 시력장애, 불면증, 학력감퇴등을 들고 있다. 엿가락처럼 늘려가는 드라머나 지나친 스포츠중계는 시청자의 입장에선 골치만 아프게 한다. 프로의 창의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 180부터
중고 $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SAMKO SALES
(Closeout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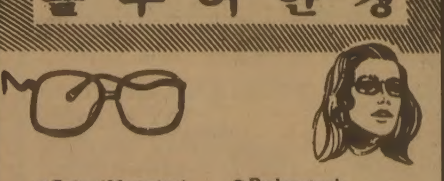
여러종류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의 남은 많은 상품을 인수하여 최저가격으로 소매상에게 팝니다. 특히 유명메이커 장난감과 선물용 제품·학용품·HOUSE WARES도 도매가격보다 훨씬싸게 공급합니다.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놀라실 것입니다.

여름 STORE HOURS : 월·화·수요일만 OPEN합니다.
(오전9시~오후4시30분)

※새장소로 옮긴후부터 (82년7월5일(월)) 여러분께 개장합니다.

<WHOLESALE ONLY>
(ADULTS ONLY)
1230 QUEEN ST. W. (Near 더프린)
☎ : 532－1114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P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全대통령을 기다리는 指導者들의 面貌

모이 케냐 대통령 (58)
苦學한立志傳…청렴·獨身의 OAU議長

貧農에서 태어나 양치기등을 하면서 苦學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한후 교원생활을 거쳐 政界에 투신한 立志傳的 인물로 문교상 지방상 내무상을 거쳐 12년간 부통령을 지내다 78년 國父 케냐타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직을 承繼, 79년 대통령에 再選됐다. 술 담배를 안하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국민들에게는 過飮을 삼가라고 자상한 설교도 하지만 공무원의 부패에는 엄하게 대하는 등 청렴한지도자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다. 작년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장으로 당선된후 아프리카의 대변인을 자처, 빈번한 巡訪외교로 국제적명성도 높다. 本名은 다니엘·트로이티치·아랍·모이. 3남4녀의 아버지로 현재는 獨身. 취미는 민속음악 무용감상과 밭가꾸기.

세후·샤가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57)
敎師출신 民政 첫 大統領…綠色혁명추진

온후한 성품의 교사출신의 정치가. 청렴결백하여 3차례의 쿠데타에서도 해를 받지 않은 인물로 경제개발상 관방상 내무상 건설상 재무상등 행정 각분야를 고루거쳐 79년 새로 출범한 민간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집권 2년6개월동안에 13년간 軍政의 殘滓로 부터 탈피, 多黨制와 언론자유에 입각한 민주 체제를 구축하고 야심적인 경제개발 계획과 綠色혁명을 추진하고있다. 強硬보다는 穩健, 대결보다는 타협, 말보다는 실천을 택하는 조용한 지도자로 나이지리아 固有의 衣裳을 즐겨입는다. 禁煙禁酒하는 독실한 회교신자로서 공식행사에는 부인을 동반치않는 奇癖이 있으며 취미는 詩作 정원가꾸기 탁구. 부인 2명에 자녀가 15명이나 되는 정력가고 知的인 풍모를 지녔다.

봉고 가봉대통령 (47)
判斷力뛰어난 達辯…非同盟 경제實利派

가봉 東南部 오또구州에서 태어나 브라자빌에서 기술고등학교까지 修學, 60년 공군중위로 제대한후 新生 가봉공화국의 외무성에 들어간 官僚出身. 初代 음바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실 국방담당관·공보관광장관등 要職을 거쳐 66년 부통령에 당선됐고, 67년 음바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77~78년 OAU의장을 역임했으며 비동맹중립이라는 대외기본정책상 공산국가와도 교류를 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경제적實利를 적극추구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지도자. 기억력이 뛰어나고 판단이 빠르며 원고없이 몇시간이나 연설하는 達辯家이기도 하다. 취미는 국외여행과 영화감상. 75년에 서울을, 77년 平壤을 각각 방문한바 있다. 本名은 엘·하지·오마르·봉고.

아브두·디우프 세네갈 대통령
솔본느卒의 長身…民主·敎育·經濟 중점

파리 솔본느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貴族風의 신사. 身長이 2m나되는 巨軀로 현세계국가원수중 最長身이다. 高校시절은 문학에 재능을 가진 수줍은 소년이었으며 아직도 남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데 정치인이라기보다 조용한 행정가 타입의 인상을 준다. 61년 국방성사무차관으로 官界에 발을 들여놓은후 대통령실관방장 기획공업상 수상을 거쳐 셍고르前 대통령의 後繼者가 됐다. 취임후 민주주의 발전 교육혁신및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政局의 안정을 유지하고 沈滯된 국내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음으로써 세네갈의 면모를 一新하려는 강한의지를 보이고있다. 술과 담배를 하지않는 독실한 회교신자로 취미는 독서.

트뤼도 캐나다수상 (62)
敎授거친 秀才…最年少首相에 再執權도

몬트리올대학의 法學部교수로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로 있다가 65년 下院의원으로 政界에 투신, 법무장관을 거쳐 68년 자유당 黨首로 선출되고 2개월후 首相이 됐다. 몬트리올 大富豪집안에서 태어나 몬트리올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그후 美하버드대학 파리대학 런던 이코노믹스쿨에서 修學한 秀才로 캐나다史上 最年少수상이 될때는 49세의 노총각이었다. 71년 52세때 29세 年下인 마거리트여사와 결혼했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의 마거리트 부인의 갖가지행동으로 국내외의 話題를 불러일으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79년 總選서 진보보수당의 존·클라크에게 정부를 넘겨주었다가 9개월만에 총선에서 컴백할만큼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있다. 가톨릭신자이면서도 법무장관시절 離婚法을 완화하고 落胎와 同性愛를 합법화하는 진보적 입법에 앞장선반면 퀘벡州分離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萬能스포츠맨으로 취미는 요가 스키 유도 스카이다이빙등.

大洋건너 交驩 5個國을 보면

全斗煥 대통령은 오는 8월17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元首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아프리카와 캐나다 巡訪길에 오른다. 80年代 頂上外交의 또하나의 章을 열게될 巡訪에 앞서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의 實情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등을 살펴본다. 【李在武기자】

케 냐 北韓공관없는 阿동남부 외교진출 거점

가 봉 1人소득 3千弗…취학율 1百%의 문화국

세네갈 79년부터 비동맹그룹·유엔서 한국지지

케냐

81년도 OAU(아프리카團結기구)의장국을 지낸 東部아프리카의 대표국으로 한국의 東部및 南部아프리카 외교진출의 거점이 되고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60년 독립한 英聯邦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2·7배인 58만㎢, 인구는 1천8백만명이며 수도는 나이로비. 국제사회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진 親西方 온건국으로 비동맹중립을 표방, 南北韓동시 修交國이면서도 북한의 공관설치는 허용치 않고있는 한국의 전통적우방.

全斗煥 대통령의 아프리카 巡訪 4개국중 북한의 대사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북한과는 통상관계와 일체협정 체결이 없는 반면 우리와는 醫療협력·文化·항공·무역및 경제·기술협력등의 협정을 맺고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비료·타이어·섬유·선박·연초·어망·로프등 1천2백만달러를 수출하고 무연탄 原皮 석유등 1천1백만달러를 수입했다.

대통령중심제국가로 議會(單院制)의원의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5년이지만 다니엘·모이대통령이 총재인「케냐 아프리카민족동맹」이 유일한 정당인 一黨정치체제다.

43개部族으로 구성된 多種族국가로 國語인 스와히리語가 있지만 공용어는 英語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土着신앙이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독교 회교 힌두교順. 국민학교는 무료교육이지만 문맹률은 49%나 된다.

우리나라는 77년 경운기14대와 승용차6대를 공여한것을 비롯, 그후 포니세단 포니픽업 카세트 라디오 서류가방등을 기증한바있으며 나이로비에있는 사파리·파크호텔을 공동경영하는등 호텔협력도 맺고있다.

現代종합상사 大宇 鮮京등에서 주재商事를두고 태권도사범 의사 관광업종사자등 90여명이 체류하고있다.

나이지리아
阿洲최대의 産油富國·한국建設시장

세계제5位의 産油國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富國이다. 한반도의 4·2배인 93만㎢의 면적에 인구는 1억으로 세계9위이며 수도는 라고스.

다종족국가로 2백50여종의 部族語가 있지만 공용어는 英語를 사용하며 原油 천연가스 철광 코아 고무등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60년대까지는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低개발국가였으나 막대한 석유자원 개발로 黑아프리카 최대 공업국으로 浮上,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서방제국과의 관계강화에 힘쓰고있다. 85년까지 식량자급을 목표로 綠色革命을 대대적으로 전개중이다. 文盲率은 75%로 의외로 높은 편.

75년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하는등 親北한 路線을 폈으나 80년 우리나라와 修交한후부터는 親韓노선으로 轉換, 81년 비동맹회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지지했다.

북한과는 통상관계가없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시장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은 선박 합판 전자제품 섬유류 타이어등을 수출하고 原油와 皮革을 수입하는데 79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1억달러의 수출초과를 기록. 漢陽주택 大宇개발 동아건설 三煥기업등이 건설用役을 受注, 施工하고 있고 三星, 현대상사등8개商事가 진출하고있으며 우리교민은 2백40여명. 精米기술자 造船기술자 水産수련생 農業수련생등이 우리나라에서 硏修를 받고있다.

60년 영국식민지에서 독립, 70년대 중반까지 쿠데타가 빈발했으나 79년에 출범한 샤가리 民間정부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민주정치체제 기반을 확립했다.

대통령 중심제에 上·下兩院을 두고 있으며 5개 정당이 議席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는 공히 4년으로 집권 여당은 나이지리아 국민당(NPN).

가봉

석유및 鑛物자원이 풍부하고 취학률이 1백%에 가까운 아프리카최고의 문화수준 국가. 한반도보다 약간 큰 26만㎢의 면적에 인구는 1백20만명에 불과하기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60년 프랑스식민지에서 독립, 東西양진영간 等距離 외교정책을 표방했으나 64년 不發군사쿠데타를 계기로 反정부세력과 공산과격분자를 일제히 제거한후 單一정당 (가봉민주당)、單院制국회、대통령중심제를 채택, 정치적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독립이후 프랑스의존정책을 펴왔으나 프랑스의 社會黨 등장이후부터 對外관계에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南北韓에 대해서도 80년대들어 우리측에 호의적인태도를보여 유엔및 비동맹에서 한국측입장을 적극지지해왔다.

75년 봉고 대통령의 訪韓이후 우리나라는 태권도복 승용차 의료기구 의약품등을 無償원조해왔으며 雙龍이 가봉국영기업체와 합작으로 백화점을경영하고 있으며 韓電은 프랑스회사 가봉정부 등과함께 3者합작으로 우라늄探査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전자제품 섬유류 신발류등을 수출하고 鐵鑛石을 수입하고있는데 약간의 出超를 유지하는상태이며 현지 거주하는 한국인은 2백여명.

多種族국가로 종교는 기독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용어는 佛語. 種族間의 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종족출신인 봉고 대통령은 種族간의 세력을 안배하여 대립을 막고 있다. 原油 精油제품 原木 우라늄 코코아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풍부한 석유收入에도 전반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이 부진하여 앞으로 各분야에걸쳐 개발의여지가많다.

세네갈

81년1월5일 셍고르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스스로 대통령직을 은퇴하여 화제를 모았던 서부아프리카의 回教國.

60년 프랑스식민지에서 독립한 多種族국가로 한반도보다 약간작은 19만6천㎢의 면적에 인구는 5백80만명으로 서울보다 적다. 수도는 다카르, 공용어는 佛語.

대통령중심제의 單院制국가로 독립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셍고르가 총선에서 5번이나 선출되자 자신을 보좌해온 디우프 수상에게 권력을 인계, 평화적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했다.

세네갈 영토안에 자리잡고있는 小國 감비아 (면적 11만㎢ 인구 60만명)에서 81년7월 공산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세네갈軍이 개입, 82년2월 세네갈·감비아聯邦을 수립하고 國名을「세네감비아연방공화국」으로改稱했다.

디우프 대통령은 무제한 複數정당제를 인정, 13개의 정당이 亂立하고 있으며 야당세의 분열로 집권당인 세네갈사회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편이다.

프랑스와 특별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조획득의 多邊化를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심화를 노리고 있으며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과는 깊은 우호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땅콩과 燐鑛石에 의존하는 單作경제로 지역및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심하고 프랑스등 외국인의 경제지배하에 있는 상태이지만 교육정책을 강화하여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南北韓에 等距離 외교를 펴고 있으나 79년 셍고르 당시 대통령의 訪韓을 계기로 한국측으로 旋回, 75년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했으나 76~78년에는 비동맹에서 중립태도를 취해오다 79년이후 비동맹및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자동차 섬유류 어망등 3백40만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입은 없었다. 78년 코트라貿易館을 설치했으며 현지 한국인은 20여명이있다.

캐나다
10大交易國으로 僑民도 4만7천명

美洲대륙북쪽에 위치한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큰 나라. 한반도크기의 45배나되는 9백92만㎢의 면적에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적은 2천4백만명밖에 되지않는다.

英聯邦의 일원으로 영국과같이 의원내각제에 上下兩院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原油 천연가스 鐵鑛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개인소득이 지난해 1만3천달러를 기록한 富國.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멤버로 西方진영방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도 오타와에서 서방선진국 경제정상회담을 주최한바있다.

6·25때 參戰한 전통적인우방으로 북한의 對캐나다접근시도를 뿌리치고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평화통일정책 南北韓交叉승인 유엔동시가입등 우리입장을 적극지지.

우리나라와는 80년이래 10대交易國으로 浮上했으며 81년 양국交易量은 10억달러를 상회했다.

작년 우리나라는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철강제품등 4억8천2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캐나다의 석탄 同位元소화합물 펄프등 5억3천만달러를 수입, 4천8백만달러의 무역逆調를 보였다.

양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기초로 통상및 經協분야에서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現代、東亞건설등이 캐나다측회사와 제휴하여 제3國에로의 공동진출을 모색중이다.

우리나라 僑民수는 北美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4만7천명이며 90%이상이 永住權 또는 市民權을 소지하고있다.

원자력및 정밀전자통신분야등 고도로 발달된 최신과학기술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트뤼도수상이 訪韓, 全斗煥 대통령과 양국의 외교및 경제협력강화를 다짐한바있다.

COREA나 KOREA나

한국, 한국人
우리의 淵源과 實體를 찾는다

〈題字=瑞石 朴一圭〉

歐美제국에서 부르는 우리나라의 이름은 코리아 이다. 영어로는 코리아 (Korea)、불어로는 코레(Coree)、독어로는 코레아 (Korea)、러시아어로는 까레야이다.

어느 것이든 「코리아」와 동일한 연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금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으로 행세하고 있는 북괴가 국제 무대에서 「DPRK」로 코리아를 쓰고있는 것도 코리아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만국공통」이기 때문이다. 말할것도 없이 코리아는 高麗·高句麗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활달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高句麗는 북방의 여러 異民族들과 부단한 마찰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일찍부터 외국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新羅와 後百濟를 멸망시키고 통일왕조를 세운 泰封의 王建이 선대 高句麗의 후신임을 천명, 국호를 高麗라 하고, 꿋꿋한 기상을 펼쳐나가자 高麗는 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단한가지 이름이 되어버렸다.

고구려국호의 연원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漢四郡의 하나였던 玄菟郡의 首縣인 高句驪縣 (지금의 通溝일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학설로 돼있다.

국사학자들은 당시 우리민족이 자기가사는 고장의 이름을 그와 비슷하게 호칭했기때문에 중국사람들이 高句驪라 한자로표기하였다고말한다.

이에 대해 李丙燾박사는 고구려의 句麗는 「城邑·國邑」을 뜻하는 忽(Khor) 骨(Kor) 溝漊(Kuru)와 같은 말의 異寫로, 본디는 洞谷(골)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였다. 高는 한자 그대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역시 우리말의 번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高·上·神高·首位를 뜻하는 당시의 우리말에 「수리」「솔」「太」이 있으니 高句麗는 곧「수릿골」「솔골」이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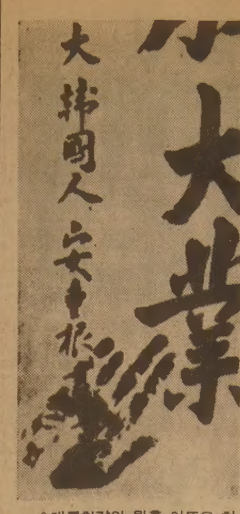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지요, 통치자가 살고있는「首都·上邑」의 의미가 그대로 高句驪縣이 되었고, 차츰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대로 국호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史書에 나오는 高句麗의 국호가 제각각인것도 이 학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隋書·周書·南齊書·新唐書·舊唐書에는「高麗」라 돼있고, 宋·梁·漢·後漢書에는「高句驪」로 표기돼있다. 「高句麗」라 돼있는 것은 魏書·晉書·南史·北史이며, 後漢書에는 「句驪」로, 魏略에는 「槀離」로 씌어있다.

모두가 「忽」「骨」「溝漊」와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인데 중국사람들이 高麗를 일러 「까우리」「까우쥐리」라 한것이 유럽에 전해져 Corea의 씨가 되었다.

蒙古가 세계적인 大帝國을 건설한 1253년 몽고에 왔던 프랑스인 루브룩이 본국에 돌아가 루이9세에게 『중국 동쪽에 카울레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유럽대륙에 알려진 최초의 일이었다.



◇대륙침략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를암살한 安重根의사는 옥중에서 휘호를 쓸때마다「大韓國人 安重根」이라서명하고 유명한 장문(掌紋)을 찍었다。그는 조사관이 朝鮮운운하고 물으면 언제나「大韓」으로 대답했다.

日帝、알파벳순서 늦추려고 「K」종용

17년동안 원나라에 머물던 마르코·폴로는 본국에 돌아가 1295년에 저술한〈東方見聞錄〉에 우리나라를 카울리 (Cauly)라고 소개하였다.

朝鮮왕조의 중반인 宣祖4年(1571년)에도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高麗로 불리었다. 이해 도우라도 (Fernao Vas Dourado)가 만든 세계지도에는 중국북부지방의 해안을 「콘라이(Conrai) 해안」으로 표기했으며, 1593년 (宣祖26년) 화란사람 페트로·플란치오 (Pettro Plancio)는 우리나라를 코라이 (Corai)라 표시했다.

「코리아」에 가장 가까운「Corea」로 표기한것은 그로부터 4년만인 宣祖29년 (1596년)。린스호텐 (Jan Huygen Van Linschoten)이 만든 〈東印度水路集附圖〉에「Corea섬」으로 우리나라를 표기,한 것이다.

이보다 26년전인 1570년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가스파르·빌렐이란 포르투갈 신부는 본국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10일쯤 가면 코라이 (Coray) 라는나라가 있다』고 썼으며 1606년 13년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탈리아 신부 프란체스코·카를레티 (Francesco Caletti)는 여행기 속에서 『Corea란 나라는 9道로 나뉘어져있다』고 소개한뒤 9도의 이름을 밝히고 Ciosen (朝鮮)은 서울이며 왕이 거처하는 도시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Corea氏 선조인 안토니오·코레아라는 소년 (壬亂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을 플로렌스로 데려간 장본인이다.

그가 朝鮮을 도시이름으로 알았고 로마자표기를 「죠센」(Ciosen)」이라한것은 1년동안 일본에서 머물며 일본사람을 통해서 들은대로 쓴 때문이다.

◇정부수립 전해인 1947년 보스톤마라톤대회를 제패하고 월계관을 쓴 徐潤福선수의 가슴에는 KOREA가 선명하다.

어쨌든 17세기말에 와서야 우리나라는 「COREA」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COREA가 왜 KOREA로 바뀌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역사학자 柳洪烈박사는『일본의 작용때문』이라 단언하고있다. 일본이 淸日전쟁에서 승리, 한반도에서 세력을 장악하면서 알파베트순서상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앞에 오는것을 불쾌히여겨 외교적으로 영국인들에게 K로 쓰도록 종용했으리라는 설명이다.

1882년에 체결된 한미수호조약이나 1884년의 한영수교조약의 원문에는 모두 COREA로 돼있는데 어째서 KOREA로 바뀌었겠느냐는 것이다.

柳박사는『1952년 뉴욕에서 발행된〈Corean Pottery〉나 대영박물관 안내책자에도 한국미술품을 설명할때는 COREA로쓰고있다』고 밝히고 C가 K로 바뀐까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美·韓英수교조약엔 COREA로

국제회의나 올림픽같은 큰 행사때 언제든지 JAPAN 바로 다음에 KOREA가 입장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의문의 제기가 가능한것이므로 「C와 K의관계」는 설명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끝으로 현재 우리가 韓國이란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서울의 전화번호부 「상호부」에 등재된 「한국」이란 상호나 단체는 대략 1천7백여개나 된다. 「大韓」이 6백여개、「조선」이 36개、「코리아」가 80개이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자기나라 이름을 이토록 사랑하는가.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1948년이후 수많은「조선」들이「한국」으로 바뀌었고、새로 문을 여는 많은 회사와 상점、단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일보의 제호에 대한 유래 한가지. 조선은행 조사부장、한국은행부총재를 거쳐 朝鮮日報사장을 지낸 고 張基榮사주는 1954년 5월말 太陽新聞을 인수、6월9일부터 한국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였다.

제호를 결정한것은 당시 편집국간부 13명의 회의석상에서였는데、후보제호 「時事新報」가 6표、「한국일보」가 6표로 팽팽한 대립을 이루자、張사주는 자신의 한표를 「한국」에 던져 결국 한국일보로 결정된것이다.

조선이 아닌 한국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목탁이기를 희구한 것일게다.

【文昌宰기자】

〈國號의 淵源편 끝〉

Digital Excellence DX

새로 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ORGAN 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올갠 시대가 DIGITAL CONTROL로 다가왔읍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 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건반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불허하게 되었읍니다.

가와이 DIGITAL ORGAN은 250개회로의 특허로 등록되었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고달픈 이민생활의 Stress를 Kawai Digital Organ의 아름다운 Melody로 온 가정에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보십시오.

★ 한국인의 유일한 가와이 딜러에서는 올갠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에게 2~6개월간 무료로 지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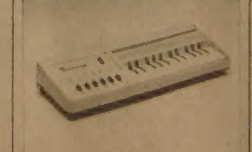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Bontempi 이태리안 올갠

$799.00

$399.00

$99.00


$39.95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호섭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신설醫大 교수要員 태부족…教育은 누가

전국의 신설의과대학에 교수요원이 태부족이다。이는 문교부가 『허가를 내주면 교수와 시설을 갖추겠다』는 학교측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先인가後시설」 방침때문에 빚어진현상。그래서 지난80년이후 설립된 전국의 5개신설 의과대학에는 학생들만 모집해놓고 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은 있고 教授는 없다

「先인가 後시설」이 禍根불러
人件費 핑계 스카웃 어물쩍

특히 전국23개 의과대학에는 기초의학교수요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이들 신설의과대학들이 다른학교에서 교수요원을 스카우트하고싶어도 절대수가 모자라외국에서 초빙하지않는한 쉽사리해결될 전망이없다。

대부분의 신설의과대학들은 『앞으로 몇년안에 교수와 시설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내놓고도 스카우트 대상이 없고 인건비등을 핑계로 요원확보를 서두르지않고 있고 문교부도 허가를 내준후 감독도하지않고있어 이문제는 공중에 떠있을수밖에 없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梁容泰)가 82년도 전국의대 교육실태를 조사한 「의과대학교육현황(1982년도)」에 따르면 지난 80년 설립된 圓光대학교의과대학(전북裡里市新龍洞)은 이번 학기초에 의예과1·2년등 모두2백8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나 내년 학기초부터 본과(의학과)로 진학하게될 학생들에게 기초의학및 임상의학을가르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등 교수요원이 단1명도 확보되지 않고있다。

또 지난81년에설립된 高神의과대학(釜山市 西區 岩南洞)도 이번학기에 의예과 1、2년학생 2백명이 등록하고있으나 다음학기부터 이들에게 기초의학과정을 가르칠 교수요원이 기초의학 9개교실을 통틀어 예방의학교실에 교수1명만이 확보되었을뿐 나머지 8개교실에는 전임강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금년에설립허가된 翰林의과대학(春川市玉泉洞)은 이번학기초에 97명의신입생을 모집했으나 기초의학교수요원은 예방의학교실을 맡고있는 학장1명뿐이다。

신설의대측은 본과 과정이 시작되기이전에 기초의학 교수요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으나 전국 23개의과대학에 기초의학교수요원 부족현상이 심각해 국외에서교수요원을 초빙해야할 형편이다。

우리나라 의과대학교수요원들중 기초의학부분은 3백37명으로 전체의26%이고 임상의학부분이 1천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기초분야에 교수요원이 부족한 이유는 의학전공학생중 개업등 장래진로로선택이 자유로운 임상의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기초분야를 전공해서 교수가 될경우 연구여건이나 수입에대한 상대적 불만등으로 기초의학전공을 꺼리고있기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등 분야로 임상을 전공하기이전에 의학의 기본지식을 교육하는 과정인데 이분야에 교수요원이 태부족함에따라 저질의료인을 양산할우려마저 있다。【金業기자】

◇80년이후설립 醫大현황

의과대학	설립연도	학생수	기초의학교수요원
慶尙大(晋州)	1981	189(의예)	1
高神大(釜山)	1981	200(〃)	1
嶺南大(大邱)	1981	144(의학)	22 (전임6+시간강사16)
圓光大(裡里)	1980	208(의예)	
翰林大(春川)	1982	97(의예)	1

雪嶽山五色서 새溫泉脈발견
하루3백톤솟아

【束草】 온천지구로 개발중인 雪嶽山五色지구에서 새로운 온천맥이 발견돼 개발에활기를띠고있다。

江原道와 襄陽郡의 용역으로 지난달 20일부터 襄陽郡 西面五加里 五色온천지구에서 2차년도 온천시추를해온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은 16일 지하2백10m의 지층에서 섭씨33도의 수온에 하루3백톤이 솟아나는 분출력이강한 알칼리성온천맥을 발견했다。

이날 찾아낸수맥은 이회사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2월11일까지 벌인 1차연도시추공 5개소중 한곳에서발견된것으로 앞으로더 깊이파내려감에따라 더높은 수온에풍부한 수량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는것。【鮎】

「換錢수표」거래자 추적
34만弗사건 "가짜書類"女行員에 시계膳物

金浦공항 미화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17일 수배중인 金琫燮씨 (31·서울江南區蠶院洞 한신공영13차 아파트329동1201호) 가조흥은행半島지점에서 여행자수표 6만달러를 환전할때국민은행 退溪路지점발행 1천만원권수표2장등10개은행에서 발행한 수표4천2백3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가운데 7백만원권 수표1장에 이서된 L쇼핑센터 입주상인 柳모씨 (35) 등 2∼3명을 상대로 수표의 거래경로를 추적하고있다。

◇수배된李永鎬씨

검찰은 또 三陽이주공사직원 嚴모씨 (52·서울江南區狎鷗亭洞 한양아파트) 등 이민알선업체직원 5명의 진술에따라金琫燮씨와李永鎬씨 (33·서울鍾路區 付岩洞 260) 河康世씨 (40·서울城北區下月谷3洞77의29)、허상만씨 (36·서울西大門區延禧洞)、김용조씨등 5명이 이민수속알선업체인 三陽、南美이주공사、번역업소인 이민오피스등의 신원을 넘겨받아 이들 이름으로된 여권과 비자를 변조、환전한것으로 보고 金씨등 5명과 南美이주공사직원 鄭壽永씨、한미오피스직원 金正淑양 (23) 등을 좇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이가운데 河康世씨는 한미오피스대표李東春씨 (45·서울銅雀區上道洞 上道아파트6동 204호) 의 외사촌동생으로밝혀졌고 허상만씨와함께 자주李씨사무실에들렀었는데 河씨는 수배중인 金모양과짜고 이민 서류수속을 의뢰한 李炯出씨 (40·서울九老區宮洞192의19) 등의 신원을 알아내 TC를 발급받는데이용한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조흥은행半島지점 金圭澈대리 (34) 가 사건이나기 3일전인 지난7일 제시된 여권에 「환전필」이 찍혀있다고 창구담당 李모양 (27) 이 말했으나 『그냥 환전해 주라』고 말한후 손목시계를 李양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은행감독원에 공문 또는 결탁여부를수사중이다。

한편 수배를받은 환전브로커 李永鎬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鍾路區付岩洞260으로 돼있으나 이주소지엔 현 李正吉씨 (39) 부부만 살고있고 李씨는 지난해3월 결혼하면서분가한뒤 소식을 끊고있다는것이다。

"金琫燮씨운전사"30代남자 自進출두

한편 이날 하오4시30분께 수배중인 金琫燮씨의 운전사라고 자칭하는 30대남자가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沃川에 위조지폐 1만원券1장발견

【沃川】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1만원권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하오8시50분께 충북 沃川郡沃川邑金龜里 동화수퍼마키트앞에서 리어카에 수박을싣고 팔던 김두배씨(42·여·沃川郡沃川邑金龜里236) 가 손님에게 수박을 팔고받은 1만원권지폐 1장이 위조지폐인것을 뒤늦게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20대 청년이 수박1통을 사고 1만원권지폐 1장을 내놓아 수박값 1천원을 제외한 9천원의 거스름돈을 주었는데 날이어두워 이돈을 돈가방에 그대로 넣었다가 17일상오7시께 수입금을 확인하던중 이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다。

이 위조지폐는 모조지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복사한것으로 한국은행권보다 종이가 두텁고 색도가 검정색이어서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지폐번호는0538691타다로 돼있다。【鮎】

남편 부축받으며 "아직도 허리가…"
高淑鍾여인 304일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애들 잘있느냐" 울먹이며 집안걱정부터
"拷問 받을땐 죽고 싶었다" 얼굴 찡그려

1년에서 60일모자라는 3백4일만에 구치소를나온 高淑鍾씨 (47)는 울고있었다。

구속당시 영치됐던 금박이 든 검은색원피스에 구치소에서내준 흰양말과 흰고무신을 신은 高씨는 구치소출입문을 나서자 만감이교차하는듯 말을 잇지못했다。

구치소 밖에서 기다리고있던 남편 尹永錫씨 (46) 와함께 택시에타자 눈물을글썽이며 『애들은 모두 잘있느냐』고 물었고 택시안에서 허리가 아픈듯 구부정하게 몸을 숙이고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며 또 눈시울을적셨다。

高씨는 이날 하오1시40분께 서울城北區 貞陵洞290의41 자택에 도착、부축을받으며 집안에 들어섰는데 세든 孫貞愛씨 (35) 가족들이 高씨를 반겨 맞았다。

이날 高씨의 장녀 (20) 는 한달전취직한 회사에 출근했고 차녀 (18) 는 16일상오어머니의석방을 빌기위해 경기도에있는 순복음교회기도원에가 집에없었고 3녀와 아들은 모두 학교에가 집안은 썰렁한 분위기였다。

李씨는 『경찰에서 모진고문을 받을때는 겁도나고 죽고싶도록 분했다』면서 『그동안 감방안에서도 억울한누명이 벗겨지기만을바랐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고문생각은 하지않기로했다』고 말했다。

高씨는 『고문으로 다친허리와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며 얼굴을 찡그리고 『구치소안에서도 계속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고 밝혔다。

高씨는 『가족들이 면회를 자주와 외롭지는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金炯俊변호사님께 고마운 마음 금할수없다』고 울먹였다。

그동안 高씨집은 남편尹씨가 다니던 검찰을 그만둔데다 高씨의 보험회사외무사원수입이 끊겼고 재판비용을준비하느라 풍지박산이나 장녀는 다니던 대학마저 중퇴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高씨의 보석허가는 16일하오에 결정됐으나 보증금을준비못해 17일에야 보증금2백만원을 납부、석방이 하루늦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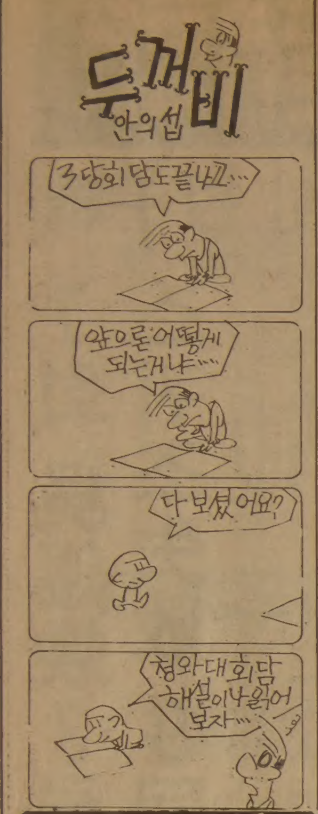
高씨의 보석보증금도 친정여동생 禮淑씨가 대부분을준비하고 친정남동생高鍾旭씨、외숙朴容在씨등이 조금씩 보태서 마련한것이라고 金변호사는 전했다。

재판비용은 친정아버지 高성찬씨、친정여동생、남동생등 가족들이 준비한외에 高피고인의 E여고 동기동창회(55년졸업) 에서 많은 도움을 준것으로 전해졌다。

해외就業미끼 詐取

【光州】 광주西部경찰서는 17일 해외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39명으로부터 1천4백여만원을 가로챈 일본京濱개발한국지점장 齊環煥씨 (40·서울西大門區弘濟洞157의7) 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齊씨는 지난해 6월부터 동회사한국지점장으로 일해오면서 尹在鎬씨 (38·光州市西區芳林洞436) 등 39명에게 자기회사또는 일본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30만∼70만원씩 모두 1천4백70만원을 받아 착복한혐의이다。【鮎】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물질적 요구… 結婚파탄 위자료 받을수 없다"
大邱地法 판시

【大邱】 처녀가 남자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한후 물질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을 파기했을경우 이에따른 위자료를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가사심판부 (심판장 李熙太) 는 17일 大邱中區 南山洞 池모여인 (30) 이 경북達城郡河濱面 朴모씨 (38) 를 상대로낸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이유가 없다고 池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부는 『결혼은 인격과 순수한 결합이어야하는데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수단으로 이용、결혼을해 배후자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물질적 요구를하여 결혼에 파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로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수없다』고 심판했다。【鮎】

◇울음 터뜨린 高여인 지난해 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3백4일만에 집에돌아온 高피고인은 세든 孫貞愛씨 (35) 의 마중을 받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1억5천만원 當座貸越미끼 승용차1臺 收賄
銀行차장 拘束

【仁川】 경기도경찰국은 17일 당좌대월을 미끼로 뇌물을받은 서울信託은행安養지점차장 백재균씨 (38·서울江南區瑞草洞화원연립주택306호) 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4월30일 거래자인 삼창사료대표 김대용씨 (38·京畿安養市博達洞621) 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당좌대월해 달라는 부탁을받고 김씨로부터 사례비조로 포니승용차1대 (싯가3백20만원)와 현금1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鮎】

警官사칭 홍콩觀光客 털어 3人組

서울시경은 17일 경찰관이라고속여 호텔에 투숙중인관광객의 밀수품을 빼앗은 李得弘씨 (39·전과3범·서울江南區新沙洞522) 崔應燮씨 (36·전과1범·서울城北區下月谷洞94) 鄭榮碩씨 (32·전과1범·江南區盤浦洞)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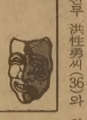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8일 상오8시께 서울中區會賢洞3街 뉴 오리엔탈 호텔715호실에 투숙중인 홍콩인 관광객 張益峯씨 (48) 를 찾아가 『경찰관이다。패스포드를 내놓으라。다알고 왔으니 옴직이면 재미없다』며 몸수색을 하는척하는동안 張씨가 기절하자 張씨의 호주머니속에 들어있던 다이어62개가박힌 비취반지 (싯가 5백만원) 다이어 24개박힌 비취반지(싯가 2백만원) 비취목걸이 (싯가3백만원) 네타이핀등 1천80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었다。

한국일보
533-2361

무너진 財閥의 꿈
宇星종합상사代表 安秉宅씨
火魔 휩쓴곳엔 젊음만 외로이…

宇星종합상사 (경기 富川市春衣洞157) 대표 安秉宅씨 (사진·38) 는 요즘 풀이죽어있다。뜻하지 않은 재난이 그의 꿈을 앗아가버렸기 때문이다。한달전만해도 그는 재벌의 꿈을 키워가던 혈기왕성한 청년실업가 였었다。

꼭 한달전인 지난5월17일 그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나 6명이 숨지는등 33명의 사상자가났다。그 사고는 그에게있어 마치 암벽을 타던 사람이 정상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일이 끊어져 버린것과 같은 비극이었다。



安씨가 전무 洪性勇씨 (36)와 함께 젊음과 국제적인 안목을 투자、소맥분 표백제 부리칭 파우더와 수지페인트용합제 과산화벤죠일을 생산하는 宇星종합상사를 차린것은 지난3월。

77년부터 오퍼상을 해왔던 安씨는 국제시장에서 美英日 3국에서만 만들어 재미를보는 이화공약품을 우리손으로 만들어보기로했던것。국내외시장이 넓어 사업은 무척 희망적이었다。그러나 그를 가로막은것은 자금장벽。

그러나 도전해보기에는 여러가지로 힘이 달렸다。그렇다고 손에 잡힐듯한 대기업의 꿈을 앉아서 포기할수도없어 발빠르게 뛰어다닌끝에 지난3월부터 드디어 생산을 시작할수있었다。

첫생산의 감격에 젖어있을 틈도없이 사업은 바빠졌다。

당초 목표했던 국산화30%의 수입대체효과로 순조롭게 조업、5월들어서는 국내시장을 80%나 점유하게됐다。95%짜리 과산화벤조일만 순조롭게 생산된다면 완전국산화의 시기는목전에다가왔다할수있었다。

불황을 타개하는 길은 새로운 기술개발뿐이라는 명제가 실증된 순간이기도했다。

하루24시간이 짧았다。밤을 밝히며 조업을 독려、대표나 종업원이나 모두 꿈에 부풀어 피로를 몰랐다고했다。

그러나 악몽이 너무 빨리 닥쳤다。주변의 빚도 척척 갚아나가고 국내유일의 대메이커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막 세우려는 시점에 비운이 덮친것이다。

그러나 한가지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不經一事不長一智)는 옛말이있듯이 安씨에게는 한가지「지혜」는 자라고 있을것이다。절망하기에 그는 아직 젊고 힘이 남아있다。

젊음과 지혜가 상승기류에 편승하도록 주위에서 용기를 주는 목소리가 아쉽다。【崔成善기자】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햇춘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8 PAPE AVE.
전화 : 425-5656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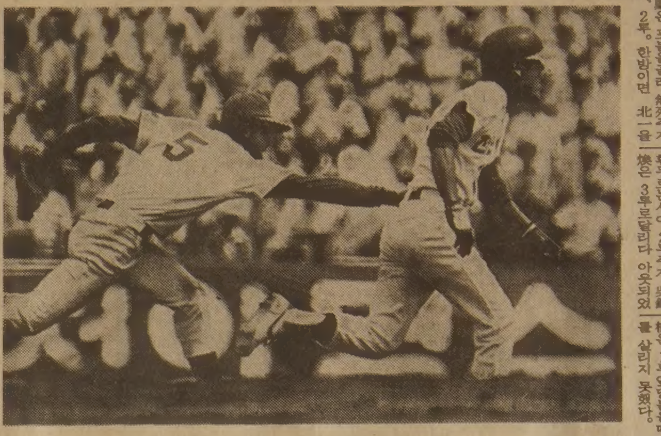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延長12회 無勝負…오늘再競技

中高野球결승 北一·群商 팽팽한 投手戰

7회 吳錫煥3루타로 1點 群商

스퀴즈失敗…9回 劇的동점 北一



◇天安北一高와 群山商高의 결승전。1회말 안타를 치고나간 北一1번 曺良根(右)이 3루까지뛰다 태그아웃되고있다。

고교야구의 강호 群山商과 天安北一高는 제37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 覇權을놓고 17일 서울운동장서 판가름을 벌였으나 연장12회까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대회규정에따라18일하오6시30분 재경기를갖게되었다。

연장10회초 群商은 4번吳錫煥이 北一3루수 趙光衡의 에러로 1루에나가고 5번趙啓顯은 포볼을골라 無死주자 1、2루。한방이면 北一을 따돌릴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

6번 張虎實이 방망이를휘두르는사이 2루주자 吳錫煥은 3루로달리다 아웃되었고、1루주자 趙는 2루까지 진출、張은 라이트플라이로 아웃됐다。2死후 8번 吳仁植은 1루앞땅볼을때려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群商은 6회까지 北一의선발 安聖洙에 눌려 1안타의 빈공이었다。그러나 7회초에 잡은 단 한차례의 찬스를 득점과 연결시켰다。

1死후 4번吳錫煥이 좌익선상으로 빠지는 통렬한3루타를 날렸고 5번 趙啓顯은 스퀴즈번트를 막으려고 수비범위를 좁힌 北一내야진을 넘기는 우전적시타를날려 선제1점을 올렸다。

두차례의 결정적인 찬스를 협살로 놓친 北一은 패색이 짙은 9회말 3번 趙龍鎬가 좌전안타를 날려 추격의발판을 만들었다。

4번張昌文의 내야 땅볼로 趙는 2進했으며、5번 金明柱가 유격수키를 살짝 넘어 중전수앞으로 빠지는 천금같은 안타를때려 1—1타이、연장전에 들어갔다。

두팀의 대전은 趙啓顯과 安聖洙의 투수전이었으나 北一高가 타격에서는 우세를보였다。

北一은 1회말 1번 曺良根이 무중간을 빠지는 2루타를 날렸으나 오버런을 하는 바람에 첫 찬스를잃었다。

3회초에도 安聖洙가 좌전안타를 때렸으나 선발李東錫대신 릴리프로 들어온 趙啓顯에 눌려 찬스를 살리지못했다。

北一은 1점을 7회말 1死후 7번 任學彬이 좌중간을 빠지는 3루타를 날렸으나 8번 安聖洙가 스퀴즈번트를 실패、3루와 홈사이에서 협살에 걸렸고 任은 3피트 라인을 벗어나 자동아웃되었다。

◇최종일 결승전

군산상	0000	0010	0000	
천안북일	0000	0000	1000	

〈12회연장 재경기〉

검은大陸의 선풍…월드컵史上 최대異變

알제리、힘센獅子 西獨잡아

2—1

【마드리드16日=聯合】 스페인 월드컵은 강호수난의 대회인가。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신예 알제리는 17일 새벽(한국시간) 히혼市에서 열린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1차리그 4일째예선 2조 첫경기서 이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인 西獨을 2—1로 물리쳐 역대월드컵사상 최대의 이변을 일으켰다。

홈팀 스페인、페널티킥…온두라스와 비겨
「잉글란드」는 프랑스3—1로물리쳐 첫勝

◇서독을 울린 알제리의 첫골。후반 7분께 알제리 FW 라바·마드예가 서독 GK 슈마커를 제치고 슛을 성공시키고있다。【히혼(스페인) AP聯合】

이때까지 월드컵서 「이변」의 경기로 기록된게임은 지난 50년 미국이 강호 잉글랜드를 1—0으로 물리친것과 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1—0으로 물리친것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북한은 우승후보가 아니었기때문에 이날 알제리가 西獨을 물리친사건은 월드컵사상 최대의 쇼크로받아들여지고있다。

과거 월드컵을 두차례차지했고 이번대회서도 우승후보로 꼽힌 西獨의 데어발 감독은 『알제리에 지다니、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힘센사자를 잡은 알제리의 코칭스태프도 『축구에는 영원한 강자가 존재하지않는다。우리는 이길경기를 이겼을뿐이다。西獨은 알제리를 과소평가했지만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상대의작전과 특기등을 연구했고 특히루메니게·와루베시를 집중분석했다』고 승리의 소감을 밝혔다。

알제리가 서독을 물리친이날은 알제리 독립 20주년기념일이었다。알제리는 지난 3월 리비아서열린 아프리카선수권대회때 4위를 차지했었다。

알제리는 후반7분 라바·마드예의 독점으로 1—0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22분 서독 루메니게에게 동점골을 허용하여 1—1。그러나 1분후 아프리카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벨루미가 극적인결승골을 넣어 검은 大陸 선풍을 일으켰다。

이날 5조 첫경기서 홈그라운드의 스페인은 中美의 온두라스와 대결、전반8분 온두라스의 젤라야에게 골을빼앗겨 고전하다가 후반 석연치않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1로 비겼으며 4조의잉글랜드는 브라이언·롭슨이 2골、폴·마리너가 1골을 올려 프랑스에 3—1로 승리、1승을 올렸다。

롭슨은 경기시작 27초만에 득점에 성공、역대 월드컵서 최단시간에 골을 넣은선수가 됐다。

◇제4일 전적

▲2조
알제리2 (0—0 2—1) 1서독
(1승) (1패)

▲4조
잉글랜드3 (1—1 2—0) 1프랑스
(1승) (1패)

▲5조
스페인1 (0—1 1—0) 1온두라스
(1무) (1무)

스페인월드컵 펠레리포트 ④

Sony Betamax
SONY

蹴球는 株價와 같이 예기못할 충격 잦아

스페인大會는 미쳐가고 있다

축구의 결과는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예기치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절친한 친구가 배반한다든가 빛나는 태양아래 용광로같이 뜨거운 마드리드에 갑자기 눈이 오는 것 같은그런이변。나는 냉소적인 인간은 아니다。

그러나 헝가리가 엘살바도르에 10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나는 믿지 않았다。나는 알제리가 西獨을 깨뜨렸다는 소식을 또 들었다。나는 이번 월드컵이 정말 미쳐버린 월드컵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리포트의 서두에서 언더독을 조심해야된다고 지적한바 있다。66년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탈락시키고 포르투갈을 패배직전까지 몰고갔던 사실을 지적했다。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일이 벌어질것으로 생각지 못했던것 같다。

나는 알제리가 西獨과 대결하는 기용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오스트리아와 칠레가 대결할 오비에도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었다。왜냐하면 나는 西獨이 알제리를 작살 내는것(이 말에대해 알제리의 용서를 빈다)에서 어떤 관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나는 西獨이 좀더 나은 팀과 싸울때 西獨을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헝가리에 관해 놀라운것은 그들이엘살바도르를 이겼다는 그자체가 아니라 10—1의 스코어는 우리들로 두를 입다물게했다。현재의 헝가리팀은 50년대에 웸블리에서 잉글랜드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주면서 6골이나 집어넣었던 막강한 그 헝가리팀의 재판이아닌가。

나는 또한 카메룬이 페루와 맞서 꿀리지않고 0—0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강한인상을 받았다。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팀들을 주 3류팀들에 대해 더많은 점수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7초만에 첫골…新記錄

西獨TV"악몽-파멸"만 되뇌일뿐
競技중 물마신 선수에 警告 말썽

◇경기시작 27초만에 득점한 잉글랜드의 브라이언·롭슨。

술집 장례분위기

◆…서독국민들은 그들의팀이 알제리에게 패하자 믿어지지않는다는듯 멍하니 TV스크린을 바라보기만。

서독의 TV스포츠 해설자들은 『믿어지지않는다』는말과 『악몽』 『파멸』 이란 단어만을 되뇌일뿐이었다。녹색T셔츠를 입은 알제리선수들이 질풍같이 달리며 서독진영을 헤집자한 TV해설자는 시청자들이 착각이라도할지 모른다는 듯『흰색셔츠가 서독입니다』고 일깨워 주기도。

서독축구팬들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말을잃었고 시내술집은 마치 장례식분위기였다。

한편 알제리에게 뜻밖의 패배를 맛본 서독수뇌진은 앞으로 열릴 칠레、오스트리아와의 대전서 최선을다하자고 다짐。

우승으로 이끈 74년 월드컵대회때 西獨은 라이벌인 東獨에게 예선리그서 1—0으로 패했으나 이후 승승장구하여 우승을 차지했었다。

롭슨選手기록경신

◆…프랑스와의 경기서 전반27초만에 얻은 잉글랜드팀 롭슨의 득점은 월드컵 본선대회사상 가장 빠른 골로 기록될듯。

지금까지의 기록은 1938년 스웨덴—헝가리戰서 스웨덴의 올레·니베르그가 첫공격에서 올린 득점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고 25~35초로 추정하고 있다。

벨루미에 군침

◆…서독과의 대전서 결승골을 올린 알제리의 벨루미(23)는 이날의 수훈으로 많은 프로팀들로부터 입단교섭을 받게될것같다。

5형제를 가진 가난한집안출신인 벨루미는 서독과의 경기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구단과 계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 벌써 프랑스의 생·데티엔느와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표명。

벨루미는 외국구단 이적문제는 체육부의 허가여부에 달렸지만 지금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허락해주지 않겠느냐고 反問하기도 했다。

벨루미는 이어 자신이 디에고·마라도나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고 『오늘(16일) 독립 20주년을 맞은 조국의 국민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바쳐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규정에없는처사

◆…바레인의 유세프·알·도이 주심은 경기중 물을 마신 헝가리의 티버·닐라시와 라즈슬로·파제카에 노란카드를내밀어 경고를 주어 말썽。

두선수는 16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도중 터치·라인에서 물을마셨다가 경고를받았는데 헝가리의 임원들은 주심의경고가 규정에도 없는일』이라며 국제축구연맹에 항의를 제기하겠다고 흥분。

武裝경찰들 警備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벌어진 빌바오의 산마메스 스타디움은 양국 응원단간에 충돌이벌어지는등 시종 험악한 분위기。

이날 경기장 주변에는 최루탄과 기관총등으로 무장한 1천명이상의 스페인 특별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진했는데 더위에 웃통을 벗어젖히고 국기를흔드는 응원단의 흥분된 모습은 양국의 라이벌관계를 실감케했다。

경기장밖에는 이지방 적십자요원 1백여명과 앰뷸런스 헬리콥터 2대가 대기했으며 경찰은 난동자들을 실어나를 대형버스 50대를동원했다。

國王까지 나와응원

◆…홈팀 스페인과 온두라스전에는 환·카를로스 스페인국왕과 레오폴도·카보·소텔로 스페인 수상등 5만여명의 관중으로 꽉차 스페인에 일방적인 응원을 폈다。

스페인의 호세·에밀리오·산타마리아감독은 경기가 끝난후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긴장했다。선수들이 잘싸웠지만 운이 없었다。온두라스가 놀라운 팀은 아니며 남은 경기에서 멋진경기를보여 이번의 졸전을 깨끗이 씻겠다』고말했다。

또 온두라스의 호세·에레라감독도 『현재 우리선수들의 기량은 최상의 상태이고 누구도 가질수없는 좋은 기분이다』며 『무승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이상聯合=綜合】

한국·브라질 爭覇

할렐루야·아인트호벤 물리쳐

◇16일 할렐루야와의 준결승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후 한덩어리로 뭉쳐 기쁨을 나누는 한국대표팀。

한국대표팀은 18일저녁 서울운동장에서 제12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覇權을 놓고 브라질의 오페라리오와 격돌한다。

오페라리오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었던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을 꺾고 결승에진출、南美축구의 저력을과시했다。

한국대표팀도 예선전의 부진을씻고 준결승전서 기동력과 개인기를 살려 할렐루야에 완승했다。

한국의플레이가 기복이 심한반면 오페라리오는 게임운영과 기술면에서 한발앞서 승산이많다는 것이 국내축구전문가들의 견해다。물론 할렐루야와의 대전서보여준 투지와 홈그라운드의잇점을 살린다면 한국대표팀도 승리를 바라볼수있다。

한국의기후에 적응、점차 페이스를 찾는것처럼 한국대표선수들도 육체적 컨디션과 정신력이 상승세에있다。

대표팀 주장겸 게임리더인 趙廣來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며 오페라리오도 청소년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비센찌가 2번 경고를 받아 결승전 출전이 막혔다。

링커인 李康助 李泰昊가 공격트리오 崔淳鎬 邊炳柱 丁海遠등과 호흡만 제대로 맞춘다면 득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대표팀은 현재까지 치른 5게임에서 득점9、실점3、오페라리오는 득점13、실점7을 기록、골득실차서 각각 플러스 6골로 팽팽하다。

한국의 金正男코치는 『오페라리오는 개인기가좋고 수비에 강하고 기습공격이 뛰어나지만 싸워볼만한상대다。우리가 갖고있는 기동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오페라리오의 가스티요코치도 『한국팀은 훌륭하지만 한수높은 개인기를 갖춘 오페라리오가 승리할것』이라고 자신했다。

7월4일로 또延期 金喆鎬 5차방어전

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의 5차방어전이 7월4일로 또 연기됐다。

金은 오는 6월26일 大田에서 동급1위인 라울·발데스(멕시코)와 지명방어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발데스측이 경기를 1주일간 연기해줄것을 요청해왔다는것。

한국팀 優勝 네덜란드 女子농구

네덜란드초청 4개국 친선농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대표팀은 17일새벽 에멜로드시에서 벌어진 최종일경기서 美國을 87—81로누르고 3전전승으로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17일 알려왔다。

한국은 전반에 중거리슛이 부진、48—44로 뒤졌으나 후반 지역방어로 美國의 장신을 견제하여 87—81로 역전승했다。

한국의 朴贊淑은 이번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동순위=①한국3승 ②미국2승1패 ③브라질1승2패 ④네덜란드 3패

당신의 권리를 위해 편지하십시오

온타리오 새 인권법규가 6월15일 법으로 개정됐읍니다

우리의 새 법규는 아주 간단하나, 강한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이 주에 살고 있는 각 개인들은 모두 평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호 존경과 이해심의 풍조를 창조키 위해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기 새 법규의 몇가지 중요한 점이 있읍니다.

인종, 종교적인 차별. 모든 사람은 고용, 계약, 숙박, 행복, 봉사 그리고 인종, 색깔, 조상, 원 태생지, 이민족등에 관계없이 편리한 시설에 꼭같이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불리한 조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모든 사람도 법규내에서 같이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고용. 법규는 가족상태에 기준해서 18세부터 65세까지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선되었읍니다.

피롭힘. 모든 사람은 금지하고있는 고용이나 숙박들의 부당한 대우로 피롭힘을 당하는데서 자유로울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으로 처우받게됨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이 법규는 이러한것들과 다른 많은 규정을 면밀히 검토, 작성됐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책자를 당신에게 보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당신이 알고, 안내할 것입니다.

편지하십시오: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A2.

또는 전화하면 됩니다.: (416) 965—6841 또는 1—800—268—9004

그리고 새 법규가 얼마나 간단명료하게 강한 개념으로 만들어져 돕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모두 우리는 온타리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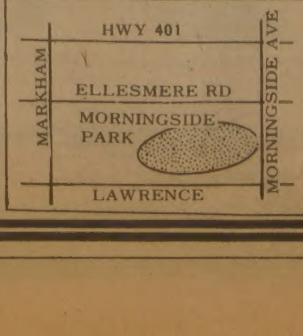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Hon. Russell H. Ramsay Minister of Labour
Canon Borden Purcell Chairman

동우야유회 및 경로잔치

〈겸 임시총회〉

싱그러운 여름을 맞아 바쁜일손을 잠깐멈추고 동우 전가족이 푸른초원에 모여 부모님께 위로와 자녀들에게 심신의 단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6월26일(토) (우천시는 7월3일〈토〉)
1부, 10시~12시 〈임시총회〉
안건 : 회칙개정및 기타
2부, 12시~5시 야유회및 경로잔치
1. 장소 : MORNINGSIDE PARK안 중간지점 (SCARBORO.)
※중식및 바베큐용구는 각자지참
(단, 음료·불고기·통돼지는 본회에서 준비함)



동우회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 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전화 : 536-2155 [illegible]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전학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오후3시부터 밤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5시간씩)집에 오셔서 살림 돌보아 주실분 구함. (보증인 필요함). 어린애들 12살, 9살. 저녁과 간단한청소.
전화 769-4366 Mrs. 김(오후6시 이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유경험자 최고가격
전화 : 245-169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유 경험 웨이트레스 구함.
희망자는 460 Dundas St. W.로 내방바람.
(3:00 p.m.이후)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유경험자)
미시사가 론•팍(Lorne Park)지역
전화 : 278-8101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경험있는 Shirt 재봉일 하실분 구함.
(Finch & Dufferin 지역)
전화 : 665-834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 직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 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건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Restaurant, Tavern, Hotel & Drive in Burgers at 쎄인캐서린, 나이아가라
1)좌석20개와 17개, 15년리스, 식당과태번은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에 있음. 좋은 가격.
2)28개의 Unit가 있는 호텔(나이아가라 폴스), 좋은 가격.
3)HWY3에 있는 18에이커의 상업대지 급매. (Crystal 과 Fort Erie가는 길임) 플라자나 Drive in Burger, 모너츠•숍지역으로 적당. Traffic이 많은 HWY3 교차로 Gas Pumps있음.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분 1-892-2089 또는 657-1722(오후5시이후•토론토)
NICK KARAN R•E. BROKER

---

1) Building for Sale
아랫층 세준 곳에서 $900/m. 수입
이층에는 4 Bed Room Apt. 621 Bathurst St.
2) Corner에 위치한 Building & Business for Sale
주매상 : $3,800(일요일은 쉼) 이층은 3 Bed Room
(Landsdown & Queen St.)
3) Danforth 와 Broadview에 있는 남성 양복점 Sale
아스킹 : $15,000
Canada Permanent Real Estate Co.
전화 : (B) 481-3443 (Paul Kim • Soula St. Jean)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3,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Donut Shop 매매.(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급매.
주매상 : $4,500+로타리오(3 Bed Room 포함)
리 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츄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465 Vaughan Rd. Tor.
관심 있으신분 내방 바람.

매상이 계속 늘고 있고 주위에 경쟁없는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3,500
전화 : 239-7267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Store 장비 팝니다.
캐쉬 레지스터, Scale(저울), Shelf 등등.
전화 : 249-9773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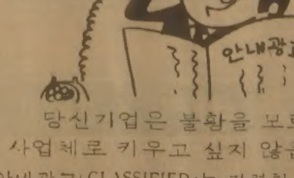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하우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광 고 접 수
533~2361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36

생 .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2ND CLASS MAIL NO. 5248